Weekly
공감
2011.08.17 NO.122
gonggam.korea.kr
IAAF World Championships
2011 Daegu
학력차별 벽을 허물고
성공시대 희망을 연다 P21~39
박유철 광복회장 "젊은이들 순국선열 뜻 퇴색 안타깝다" P6~7
대구세계육상선수권 선수단 속속 도착… 지구촌 축제 '카운트다운' P14~19

2011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Korea Nation Branding Convention 2011

전시

8.25목 → 8.28일 | 코엑스 A홀

세계가 열광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열정과 감동의 순간!

한류의 원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신적 가치 그리고 찬란한 문화유산!

한류의 진화
지역 한류 : 지역 특색을 살려 세계로 뻗어가는 지역 브랜드
경제 한류 : 세계를 이끄는 우리 기업의 활약상
문화 한류 : 한국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이야기
국민 한류 :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한류, 세계와 함께 미래로
우리 모두가 국가브랜드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체험

문화 행사

8.25목 → 8.28일 | 코엑스 A홀

전시 기간 중 특별 무대에서 한류를 대표하는 공연과 강연이 펼쳐집니다.
공연도 즐기고 강연도 듣고, 다양한 체험 행사에 참여해 푸짐한 기념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류 스타 f(x)공연, 태권도 시범, 안동 탈춤, 강연(서경덕 교수) 등

컨퍼런스

8.25목 → 8.26금 | 코엑스 E5, E6홀

주제 : 소프트파워가 국가브랜드 경쟁력이다.
기조 강연 : David Aaker 버클리대학교 교수

8.25목 13:30~16:10
국가브랜드 : 이론과 실천
세계화 시대의 국가브랜드 : 이슈와 전망

8.26금 09:00~18:00
사람과 문화 그리고 국가브랜드
신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전통문화 유산의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브랜딩 전략
스포츠와 국가브랜드
'Brand Korea'의 소프트 파워와 국가 경쟁력

주최

후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졸 취업 기회 더 열려야

조선DB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

최근 학력 인플레, 학력 철폐가 우리 사회의 화두다. 고학력 청년실업과 반값등록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다. 그런 사회현상에 관한 대안 제시와 그 실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다행으로 여긴다.

자신의 진로나 목표에 따라 전문적 공부가 필요하다.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공부라면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 모두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 없이 남의 이목을 의식해 가는 대학이라면 경제적, 시간적 낭비일 수도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여상은 문을 연 지 85년이 된 사립고등학교다. 서울여상도 1990년대에는 대다수 실업계고와 마찬가지로 우수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IT 특성화를 통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전력투구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국제통상, 금융정보, e비즈니스 특성화고로 지정됐다.

최근 벤치마킹차 본교를 방문한 사람만 5천5백명이 넘는다. 여러 언론매체에서 '실업교육의 슈퍼모델' '여성 금융사관학교'로 소개하고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이 크다.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했다. 방학도 반납하고 연수를 받으며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의 열정과 교사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예의바르게 따라 준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성화고가 우수인력 양성에 집중하려면 진로에 대한 확신과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간판이 아닌 실력으로 아이들을 뽑아야 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저평가 분위기가 바뀌고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된다면 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질병들도 치유될 수 있다.

특성화고가 우수인력 양성에 집중하려면 학생들에게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확신과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직종에 특성화고 학생만 취업자격을 주는 역(逆)학력제한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간판이 아닌 실력으로만 아이들을 뽑아야 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저평가 분위기가 제대로 바뀌고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다. 은행권과 기업체의 고졸사원 채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진로지도와 용기 있는 선택,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열린 기회의 제공이 구체화되길 바란다.

학력 인플레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학 졸업장을 쥐고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졸업생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다시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다. 낭비가 아닌 실리교육을 해야 한다.

학력문제는 인식 전환에 관한 문제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행복을 느끼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또 이런 관심과 긍정적 변화가 한때의 시류에 그치지 않고 성숙한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Contents

NO.122 2011.08.17 통권 223호

기획특집

'성공인생' 가는 길에 학력차별은 없다

대학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시대입니다. 어렵게 대학을 마쳐도 취직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 한 명꼴입니다. 여기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인생을 멋있게 엮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회가 공정사회입니다.

표지 이야기 태극기 물결이 펼쳐졌다. 학생들의 눈망울에서도 조국 광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지난 8월 9일 경기도 수원의 한 자원봉사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태극기 문양의 우산을 활짝 펼쳐들었다. 사진·연합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8.1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14

48

54

| **특별기획** | **대구세계육상선수권**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25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신부님의 봉사정신은 길이 남을 것

"120호 기획특집 '당신이 영웅입니다–故 이태석 신부'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각박한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국민추천포상을 받은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영화 〈울지마 톤즈〉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수단의 슈바이처' 故 이태석 신부님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의 봉사와 희생정신은 영원토록 우리 가슴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강주찬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3동)

나눔의 바이러스가 한껏 퍼지길

"120호에 실린 '기획특집–남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읽으면서 메마른 사회에서도 묵묵히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영웅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재능을 베풀며 사는 삶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봉사와 나눔의 바이러스가 한껏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이창훈씨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120호 공감 이사람 '한국방송 사상 첫 장애인 앵커 이창훈씨'에 관한 기사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창훈씨의 사연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기사를 읽으며 장애아동인 반 친구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애우가 불편함 없이 사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애우 대상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인의 편견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의 우상이 될 이창훈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순금 (대전시 서구 도안동)

슬로시티에서 못다 한 휴가 즐길래요

"120호 '공감여행'에서 소개해 준 '신안 증도, 시간도 쉬어가는 슬로시티'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휴가다운 휴가를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장 떠나보려고 합니다. 특히 슬로시티와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기름진 갯벌들이 어서 오라고 유혹하는 듯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연이 살아 있는 신안 증도를 찾아 올여름 못다한 휴가를 즐기고 와야 겠습니다."

김형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공감〉, 어르신들에게 활력 불어넣어

"저는 중증장애인 노인생활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20호 기획특집 '당신이 영웅입니다'를 제가 보살피고 있는 어르신들께도 읽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숨은 영웅들의 나눔과 봉사에 대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누워 지내는 어르신들께 삶의 활력을 전해드릴 수 있어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김종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이 기사, 아쉬워요

"다리 이름의 유래 혼란스러워"

120호의 공감여행 '신안 증도, 시간도 쉬어가는 슬로시티'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 '짱뚱어다리'의 이름에 대한 유래가 '짱뚱어를 닮아서'와 '다리 아래에 짱뚱어가 많이 살고 있어서' 두 개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설명이 나와 있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서영 (대학생·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도 알려주세요"

121호 공감여행 '강원 고성, 관동별곡 8백리 옛 시인의 노래 들리는 듯'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글과 사진을 보면서 꼭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정보에서 자가용 이용 시 찾아가는 방법만 소개돼 있어 아쉬웠습니다. 대중교통도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취업준비생·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공감퍼즐

		1			
2				3	
			4		
5		6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8월 23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우수한 기술자나 도공, 예술가 등을 일컫는 말. "독일처럼 기술○○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 두 사람이 손을 맞걸어 잡아 井자 모양으로 만드는 것. 또는 이것에 사람을 태우는 놀이.
3. 세 가지가 서로 잘 어울려 딱 들어맞음.
4.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
5.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세로
1.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
2. 찾아오는 ○○을 친절하게 ○○하는 일. "오는 8월 27일 개막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 준비는 끝났다."
3.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뭐라 부를까요?
4. 녹색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수분으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
6. 최근 미국이 이 바다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죠.

〈Weekly 공감〉 120호(8월 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영웅 3 가자미 5 고교 6 금강 8 수방대책
세로 1 물가 2 영미 4 자본금 5 고생대 7 강수량

〈Weekly 공감〉 120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민정 ·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이인호 · 경북 김천시 시청6길
이재복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장미란 · 경북 구미시 광평동
최청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http://fair.korea.kr에서 만나보세요!

〈Weekly 공감〉 120호 '도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퀴즈' 정답자

김미경 · 경기도 군포시 수리동 / **김병국** · 광주시 북구 중흥동 / **박경서** · 서울시 양천구 오목천9길 / **박기풍** · 광주시 서구 유촌동 / **박부용** · 대전시 서구 월평동 / **박천호** · 충남 금산군 금산읍 / **신선영** ·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 **이현정**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 **정 경**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최재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알 림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브랜드를 공모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브랜드를 공모한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방산원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최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시범 개통했으며 2012년 4월 전면개통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 | 9월 8일까지
공모 내용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이미지를 상징화할 수 있는 '심볼'과 구축 배경 및 목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네임'이 포함된 '슬로건'
응모 방법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blog.naver.com/dapapr)에서 응모신청서 내려받은 후 이메일 접수(dsleego@korea.kr)
지원 혜택 | 상장 및 상금 수여

방위사업청 대변인실 www.dapa.go.kr ☎ 02-2079-6035~6

엄마와 함께 환경도서 독후감에 참여하세요

환경부는 향후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학생 및 주부들의 환경보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엄마와 함께 하는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한다. 초·중·고등학생 및 주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 | 8월 31일까지
공모 부문 | 환경관련 도서 또는 환경부 발간 간행물(환경부 홈페이지 참고)
공모 방법 |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3동 497-66 서울상공회의소 동부지소빌딩 환경보전협회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 담당자 앞)
지원 혜택 | 환경부장관상 외 상금 수여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www.me.go.kr ☎ 02-2110-7699

박유철 신임 광복회장

"젊은이들 순국선열 뜻 퇴색 안타깝다"

매년 8·15 광복절이면 누구보다 바빠지는 사람이 광복회장이다. 지난 6월 1일 광복회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박유철 회장은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와 동해 표기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도 그는 "할아버지(고 박은식 선생)와 아버지(고 박시창 장군)의 유지를 잇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DB

박유철 광복회장은 "광복회는 이 나라와 국민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15 광복절은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희생과 투쟁 끝에 흘린 피로 어렵게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6월 1일 광복회 19대 회장에 취임한 박유철(73) 신임 광복회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광복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돼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광복회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와 그 유가족들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인 1965년 2월 민간단체로 설립됐다. 전국 12개 시도지부와 83개 지회를 거느린 광복회의 회원 수는 6천9백여 명으로, 광복회장은 대통령 자문 국가원로회의 위원으로 국가최고원로 대우를 받는다.

"동해 표기문제엔 장기적 외교전략 필요"

마침 인터뷰 전날인 8월 8일 미국 지명표준위원회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전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박 회장은 "참 답답한 일"이라고 한숨을 내쉬며 "독도와 동해 표기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장기적인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 7월 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 때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7월 28일 광복회원 2백여 명을 이끌고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들의 입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 각지의 광복회 지부에서도 비슷한 규탄집회가 열렸다.

"자민당 의원들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자국 정부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방문 강행 쇼를 연출했습니다. 소속 정당의 당론까지 무시하고 보란 듯이 만행을 저질렀죠. 방위백서와 교과서를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상시화하려는 전략과 일치합니다. 엄연한 우리 땅 독도를 일본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의도를 차

단하고자 집회를 열게 됐죠."

광복회는 일본대사관에 전달한 항의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조차 무시하고 뻔뻔하게 방문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교활한 술책"이라며 "일본 자민당과 일본 정부는 개인 차원의 얄팍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국 의원들에게 우롱당하지 말고 울릉도 방문을 당장 취소시켜라"고 성토했다.

박 회장은 친가와 외가, 처가 모두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명문가 출신이다. 그는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중국 상해에서 태어났다. 박 회장의 부친은 광복군 상해 지대장을 지내고 제5대 광복회장을 역임한 고 박시창 장군이다.

광복회

박유철 광복회장(오른쪽)과 광복회원 2백여 명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 회장의 조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지낸 고 박은식 선생이다. 외조부는 일제 때 상해 거류민단장을 지낸 고 최중호 선생이다. 한편 박 회장의 부인은 구한말 언론인으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고 양기탁 선생의 장손녀다.

"일본 의원 울릉도 방문 시도는 교활한 술책"

이 같은 집안 배경으로 매년 광복절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과거 공직에 있을 때도 광복 관련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독립기념관 4, 5대 관장과 백범기념관 건립위원장,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위원장을 지냈다. 국가보훈처장(장관급)을 지낼 때는 조국 광복에 헌신한 애국지사들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광복회장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광복절날 자택에 태극기 내거는 일을 손수 챙긴다. 박 회장은 "매년 광복절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사랑하신 집안 어른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집안 어른들을 따라 나 역시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예전보다 위상이 약해진 광복회의 쇄신 방침을 밝히는 것도 잊지 않았다. 광복회는 출범 후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안중근기념관 건립을 이뤄냈고, '순국선열의 날' 제정을 주도했다. 또 중국 만주 등지서도 독립선열 유지 계승을 위해 독립운동 기념비와 위령탑을 세웠다. 매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거론할 때도 가장 먼저 규탄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광복회는 회원들의 고령화와 잇따른 별세로 조직 자체가 축소돼 왔다. 회원수는 6천9백명가량이지만 회원 대다수는 독립운동 유가족들이다. 여태껏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들은 회원 중 극히 일부다. 박유철 회장은 "올 8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는 국내외를 통틀어 1백44분에 불과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돌보는 데 더욱 힘쓸 것"

박 회장은 현재 소송 중인 친일재산 환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조성해 생존 애국지사들을 돌볼 계획이다. 그는 "서울 시내에 독립운동 선열들의 위패를 모실 '추모의 전당'을 건립할 것"이라며 "같은 광복회관을 쓰는 국가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빈 공간을 잘 활용해 유가족들의 복지 향상에도 힘을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복회는 이 나라와 국민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단체가 돼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순국선열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반쪽짜리 대한민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 된 조국을 원하셨죠. 이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G

글 · 이동훈 기자

준설토 처리·침수 피해 예방 '일거양득' 농경지 리모델링 하니…

상습 침수 '버려진 땅'이 '금싸라기 땅'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 중 하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다. 이는 강바닥에서 준설한 흙에서 비옥토를 따로 모아 하천변 저지대 농지를 높임으로써 준설토를 처리하고 저지대 농지의 침수 피해도 막는 '일거양득' 사업이다. 이렇게 돋운 4대강변의 농경지는 올여름 유난스런 장마에도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데다 앞으로 고소득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다. '버려진 땅'에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낙동강변에 펼쳐진 드넓은 평야가 온통 진초록빛이다.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 부은 지난 8월 9일, 한창 초록빛이 물오른 평야 가까이 가보니 벼과에 속한 강아지풀이다. '벼의 사촌'이 이 평야의 주인을 자처한 셈이다.

이곳은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와 농소리 일대 낙동강변에 조성 중인 '초곡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현장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강바닥에서 준설한 하천의 흙 중 비옥토를 골라내 저지대 농지를 성토하는 영농환경 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1백40개 지구에서 연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가 사업을 맡은 초곡지구는 약 18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방변 저지대 농지 1백4헥타르를 평균 4미터 높여 제방 높이로 돋워 놓았다. 이렇게 농지를 높이는 데 현재 준설토 목표량(4만24세제곱미터)의 96퍼센트가 투입됐다.

"땅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농경지 성토뿐 아니라 농수관리에 필요한 용수로와 배수로를 분리 설치, 기존 농로(2미터)의 2배인 농로 신설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 논에서는 물이 들어오고(용수로) 나가는(배수로) 물길이 하나였지만, 그러다 보니 농수 이용이 비효율적이어서 농수이동로를

준설토로 저지대를 메워 저 멀리 나무가 도열한 제방까지 평야로 이어진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앞 '초곡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현장. 지금은 강아지풀이 가득하지만 내년부터 이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의 새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들길과 날길로 분리한 것이다. 이렇게 정성들여 농경지를 새로 만들고 있는 곳에 강아지풀들이 제 땅인 양 기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 이렇게 씨앗이 날아와 자라는지, 농경지 리모델링을 마친 곳마다 강아지풀 천지예요. 땅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강금석(48) 초곡리 이장이 기분 나쁘지 않은 듯 눈치 빠른 강아지풀을 탓했다. 강 이장은 "준설토를 골라내 비옥토로 조성한 새 농경지는 배수가 잘돼 침수 피해가 없을 거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런저런 동네 상황을 말하는 내내 그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내년 농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초곡지구는 1970년대 낙동강 범람을 막기 위해 쌓은 제방과 마을 사이에 자리 잡은 저지대. 비만 오면 개천이 역류해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지역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인 폭우에도 끄떡없었다.

"초곡지구 상류지역에 비가 오면 잠을 못 잤지요. 강바닥이 높아 유속이 느리니 배수가 제대로 안 돼 제방변 저지대 농경지들이 만날 침수되니까요."

내년부터 시설원예 등 고소득 작물 농사 '부푼 꿈'

강 이장도 초곡지구에서 화훼농사를 짓다 침수 피해를 입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초곡지구뿐만 아니다. 올여름 장마기간 중 이상 강우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된 4대강변 저지대 농민들은 오랜 침수 걱정을 덜어냈다.

금강 하구의 저지대 농경지인 전북 익산시 용안면(용안지구)과 웅포면(웅포지구) 일원도 지난 장마기간 중 482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쏟아졌지만 논두렁과 수로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을 뿐 더 큰 침수 피해는 입지 않았다.

장마철이면 남한강변에 인접한 논이 침수돼 뜬눈으로 밤을 새우던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배대보지구), 소태면 양촌리(양촌지구)의 농민들도 올여름 장마 동안에는 편한 잠을 이뤘다. 한강 준설토로 배대보지구와 양촌지구를 각각 평균 4미터, 5미터씩 높여 침수 걱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농경지 리모델링 지역에 현재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침수 예방이 내년 이후 농사 전망을 밝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효과는 단순히 침수피해 방지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작물, 시설원예 등의 고소득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됐다.

초곡리 강 이장은 "초곡지구는 95퍼센트 이상이 사유지인데 잦은 침수 피해로 버려진 땅이 되다시피했다"며 "하지만 이젠 시설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됐다. 내 경우 기존 화훼 재배에 수익성 높은 블루베리 재배를 더해 체험농장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허허벌판이 돈워져 초록빛 평야로 변했어요." 강금석 초곡리 이장이 마을회관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전 초곡지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리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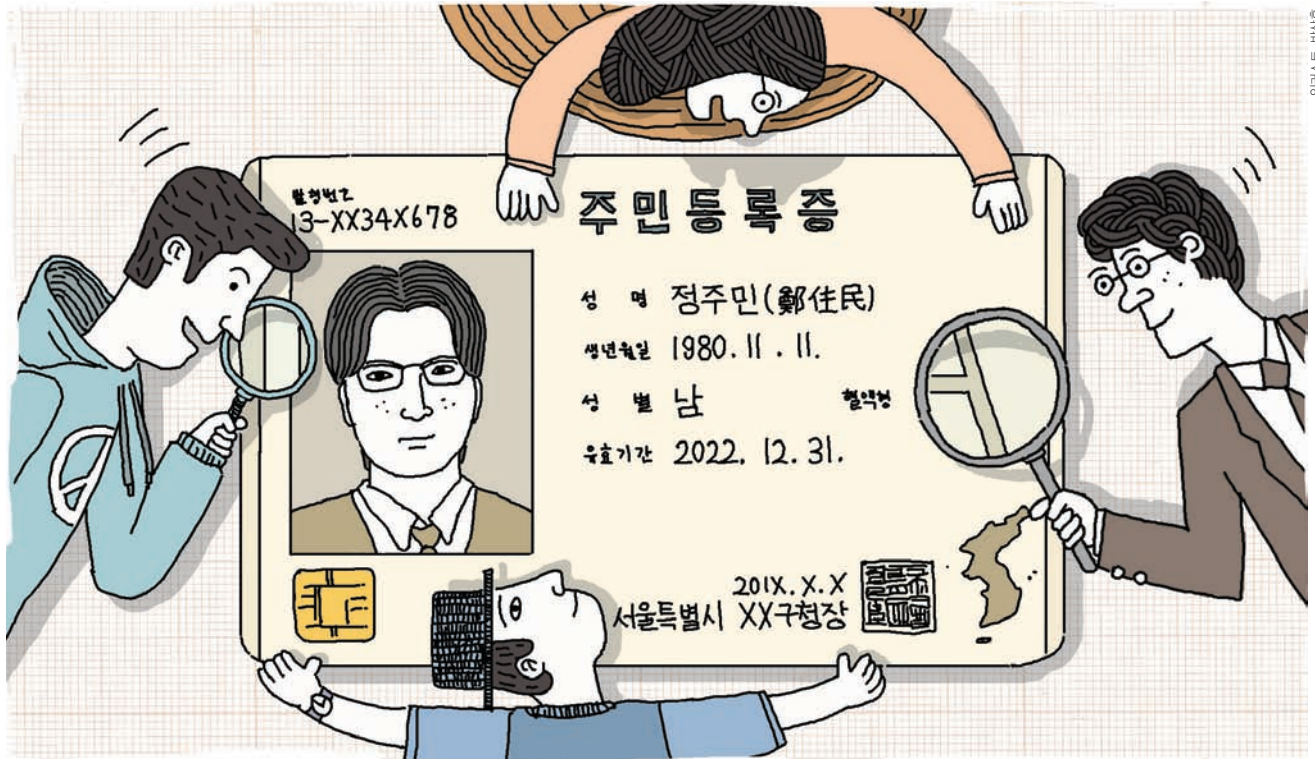
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계기로 농가의 영농 규모를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농규모화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는 초곡지구의 경우 농지를 가로 세로 100×40미터 크기로 구획화하기로 하고 초곡지구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흩어진 농지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땅을 바꾸는 환지와 농지매매·임대를 유도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도 병행 대규모 농사도 가능해져

강 이장은 "대부분 고령자인 초곡지구 소유주들이 '당대 이익을 누리기보다 후대에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영농규모화사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대규모 농사가 가능해진다는 소문이 나니 벌써 초곡리에서 외지로 나갔던 서너명이 귀농을 문의해 왔다"고 전했다.

초곡지구가 속한 구미는 전국 최대 준설토 발생지역(4대강 준설토의 20.5퍼센트)이기도 하다. 구미는 현재 17개 지구 1천5백38헥타르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며 이장회의 등을 통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이후 새로 확보된 농경지에서 재배할 맞춤한 농작물 품목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지역개발팀 박기영 과장은 "강 주변의 농경지들은 강 수위보다 낮아 침수 피해가 잦은데 초곡리, 농소리 주민들이 이번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큰 수혜를 입었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다음 단계는 새로운 농경지를 바탕으로 농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고 보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일러스트 · 박상훈

전자주민증! 위·변조 사기 막는다

주민등록번호·지문을 IC칩에 내장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주민등록증이 위기다. 위조와 변조를 통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피해 규모도 크다.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사건이 발생할 정도다. 1백만원이면 누구나 하루 만에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는 위조와 변조가 어려운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도 예방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에 거주하는 L씨는 상당한 재력가지만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느 날 L씨는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억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가 됐다. 전문 사기단이 L씨의 신분증을 위조해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돈을 빼낸 것이다. 이들이 사용한 가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로부터 1백50만원에 구입한 것이었다.

이처럼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 등 경제범죄가 기승이다.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조 기술이 정교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적발 건수는 2007년 3백87건에서 지난해 5백36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무려 연간 1천2백5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와 이를 통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승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기술서기관은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에 취약하게 됐다"며 "새로 도입할 전자주민증은 IC칩을 내장하고 있어 위·변조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 이에 비해 전자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IC칩에 저장한다. IC칩을 해킹하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월하다.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터넷 사이트 회원 등록부터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번호는 신분 확인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증을 사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전자주민증에는 발행번호와 유효기간 등 현재는 없는 정보가 표기돼 있다. 이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다. 카드를 분실하면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 새 카드를 발급받듯이 전자주민증의 발행번호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통합신분증 우려 없애… IC칩 해킹 가능성도 희박

전자주민증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IC칩에 운전면허, 건강보험, 여권 등 각종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할 때마다 사용 행적을 기록해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의 항목은 법률로 규정돼 있다. 수록 정보를 추가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등록법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기능에 필요한 항목만을 수록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통합신분증이 될 수 없다.

중앙데이터베이스의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유출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자주민증은 네트워킹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주민증의 IC칩을 해킹해 정보를 추출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제보안평가기준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신형 전자칩을 해킹하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수십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자비용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엔 10년간 총 4천8백62억원이 소요된다. 같은 기간 현재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는 데에는 3천2백84억원이 필요하다. 1천5백78억원이 더 드는 셈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발생하는 연간 1천2백50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면 투자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는 강조한다. G

글·변형주 기자

이재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전자주민증 도입 지금이 적기"

이경민 기자

IC칩을 내장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다. 1998년 도입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전자주민카드가 시발점이다. 운전면허와 건강보험 정보도 담긴 '통합주민증'이었던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과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와 이를 통한 범죄를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1999년 디자인돼 발급된 것으로 어차피 교체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으니 사진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바꾸려면 위·변조에 취약한 현 주민등록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더 들지만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입니다.

IC칩의 해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해킹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위·변조에 취약한 기존 주민등록증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전자칩을 내장한 신분증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미 86개국이 전자여권을 도입했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전자신분증을 사용하는 나라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1개국에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IC칩이 해킹돼 위·변조된 사건이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IC칩을 해킹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킹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IC칩에 저장된 정보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자주민증의 정보를 읽는 판독기에는 최신의 통합보안솔루션을 탑재해 보안을 최대한 강화할 것입니다. 판독기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행안부가 보급한 솔루션이 탑재되지 않은, 불법적으로 개량된 판독기 사용을 차단하고 판독 소프트웨어를 해킹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한 벌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적인 보안관리체계에 맞게 보안체계를 운영하고 제3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이를 보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뱅킹 이상의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전자신분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전자주민증 도입의 취지와 운영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쟁점을 상당수 법안에 반영해 우려되는 사안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등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명칭 '일본해' 단독 표기 가능성 낮다"

미국의 결정은 실무 27개국 중 1개국 의견에 불과… 내년 IHO총회서 결론

조선DB

미국의 파이락시스사가 개발해 전 세계 9백만 장이 판매된 히트 온라인게임인 〈시드 마이어의 문명5〉가 동해를 'East Sea(점선)'로 명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해'라는 지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8월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HO는 2012년 총회를 앞두고 동해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일본해'라고 표기된 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80개 회원국 중 27개 회원국이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일본해 단독 표기 발표는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정부의 발표 후 국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우리 정부가 동해의 표기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다. 그 전엔 18세기 말 근대적인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1백 년 이상 사용된 '일본해'가 국제적인 표기였다.

우리 정부는 20년 동안 회원국의 지명위원회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일본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 왔다. 그 결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주요 세계지도가 2000년 2.8퍼센트에서 2009년에는 28.1퍼센트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에 1백 년 이상 늦게 출발한 데다 일본의 견제가 집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신맹호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동해 수역 표기와 관련해서 그간 국제사회 내의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서 국제기구 차원에서, 주요국들과의 양자 차원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해 왔다"며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은 아니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하나의 실체에는 가장 널리 쓰이는 하나의 이름만을 인정하는 '단일지명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 수역에 대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본해'를 쓰고 있는 것이다.

IHO는 1929년부터 세계의 지명을 표준화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책을 내고 있다. 여기에 명시된 이름은 세계 각국에서 제작되는 지도의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개정됐고 현재 4차 개정판을 위한 실무그룹(27개국 참여)이 구성되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해' 병기 세계지도, 9년새 10배 늘어

동해처럼 하나의 지역이지만 여러 국가가 접해 있어 복수의 이름이 존재할 때 이해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이름을 정하든지 여러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각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성재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교섭과 설득의 결과 실무그룹 참여국들이 동해 표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실제로 실무그룹 참여국 상당수가 일본해 단독 표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국가가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10개국은 한국과 일본의 협의를 통한 이름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대변인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모멘텀이 쌓여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변형주 기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이 8월 10일 태릉선수촌에서 발대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엔트리 마감… 지구촌 축제 '카운트다운'

호주 선수단, 선수촌 첫 입촌… "집같이 편하고 시설 좋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의 참가신청이 최종마감된 데 이어 8월 27일 대회 개막을 앞두고 각국 선수단이 속속 입국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해 경산· 창원·울산 등 경상권 도시는 물론 멀리 목포와 서귀포에까지 각국 선수단의 훈련캠프가 문을 열고 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을 2주가량 앞둔 8월 15일 각국 선수단의 참가신청이 최종 마감된 가운데 각국 선수단의 입국 소식이 속속 전해지며 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구세계육상에 참가하는 첫번째 손님은 호주 선수단이었다. 호주 선수단은 8월 10일 저녁 8시45분 대구공항을 통해 입성, 대구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어 8월 13일 미국 선수단이, 8월 15일엔 타지키스탄 선수단이 입국했다. 또 남자 100미터·200미터 세계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를 위시한 자메이카 선수단이 8월 16일 입국한다. 또 8월 17일 튀니지 선수단, 18일 네덜란드 선수단, 19일 프랑스 선수단 등이 속속 도착해 대구 현지 적응훈련을 하며 대회 개막을 기다리게 된다.

세계육상선수촌은 첫 손님으로 17명의 호주 선수단을 맞으며 모든 부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선수촌은 첫 손님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선수촌에서 첫날 밤을 보낸 호주 선수단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경산에 캠프… 멀리 제주·목포에도 차려

에릭 홀링스워드 단장은 "집같이 편안한 분위기에 시설도 굉장히 좋다. 선수들이 사진을 찍어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어 "다들 편하게 잘 자고 일어났으며 오늘(11일)은 가볍게 몸을 풀면서 컨디션을 조절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선수촌'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이번 대구대회가 처음이다. 이번 대구 조직위는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과 연습시설까지 완비한 선수촌을 마련했다.

선수촌 연습장 관리담당관 이경석(44)씨는 "선수들이 가장 편하게 지내며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로 건설된 5백28세대 규모의 선수촌은 47개 종목에 출전하는 2천여 명의 선수와 1천5백여 명의 임원들을 모두 수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각국 선수단은 대구를 비롯해 경남권 도시들과 멀리 제주도에까지 마지막 훈련을 마무리하고 시차와 기후 적응을 하기 위한 훈련캠프를 개설한다.

각국의 훈련캠프 가운데 가장 빨리 문을 연 곳이 미국 선수단의 대구시민운동장 훈련캠프. 1백40여 명으로 구성된 미국 선수단은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인근 인터불고호텔에 머물며 이곳 시민운동장에서 금메달을 향한 담금질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은 8월 14일부터 목포유달경기장에 단체로 훈련캠프를 차렸다. 이들은 8월 30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머물며 유달경기장에서 연습한다. 또 캐나다 선수단은 창원종합운동장(8월 14~31일), 영국 선수단은 울산종합운동장(8월 15~31일)에 훈련캠프를 열었다.

한국 로드레이스팀, 실전 같은 현장 연습

파워 스타' 볼트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메이카 선수단은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경산육상경기장에 훈련캠프를 차리며, 폴란드 선수단이 거창스포츠파크종합운동장(8월 18~28일), 독일 선수단이 서귀포 강창학경기장(8월 18~31일)에 각각 훈련캠프를 차리게 된다.

한편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첫 금메달까지 노리는 우리나라의 로드레이스(마라톤 및 경보) 국가대표팀이 8월 10일 태릉선수촌에서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8월 12일 대구에서 실전 훈련을 가졌다.

정진혁(남자마라톤)과 김현섭(남자경보 20킬로미터)을 비롯해 로드레이스에 출전하는 남녀 16명의 선수들은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마라톤 루프(LOOP)코스에서 사전 적응훈련을 했다.

루프코스란 종각네거리-청구네거리-수성네거리-범어네거리-황금네거리-두산오거리-수성못-상동네거리-중동네거리-대구은행네거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종각네거리를 이어지는 20킬로미터 길이의 구간을 경기 종목에 따라 1~3회 선회하는 방식의 로드레이스 코스를 말한다.

조선DB

이렇게 달리면 되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1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격려차 대구를 방문, 대구스타디움에서 육상꿈나무들과 몬도트랙 위를 달리고 있다.

10개 종목에서 10명의 결선 진출자를 배출하자는 '10-10'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선봉에 선 종목이 바로 로드레이스다. 남녀 마라톤과 경보(남여 20킬로미터, 남 50킬로미터)로 이뤄진 로드레이스 대표팀은 한국 육상에 희망을 안겨 줄 종목이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 마라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지영준이 빠졌지만, 정진혁에게 기대가 크다. 정진혁은 올해 열린 2011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 10분대(2시간 9분 28초)의 벽을 깨며 2위를 했다. 남자 마라톤은 단체전에서 금메달까지 노리고 있다. 김현섭은 한국 선수 중 결선 진출이 아닌 메달까지 바라보는 선수. 김현섭은 1시간 19분 31초란 한국신기록으로 세계랭킹 7위에 올라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1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구 스타디움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육상 꿈나무들과 직접 경기장을 달려도 보고 대구 스타디움의 자랑인 몬도트랙을 직접 만져보며 경기장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준비상황에 만족감을 나타낸 이 대통령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대회가 성공해야 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한다"며 대구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대구에 와서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해 주세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분야에 따라 지급된 유니폼(하늘, 연하늘, 노랑, 빨강)을 입고 육상체험관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자성규, 조영원, 이희령, 이승빈, 김계현씨.

대구 오시면 '금메달급 봉사' 해드립니다

자원봉사자 발대식서 유니폼 첫 공개… 통역 등 11개 분야서 6천명 활동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발대식이 열렸고 활동 분야별로 4색 유니폼이 지급됐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약 6천명. 이들은 8월 27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 개막 전부터 통역, 안내, 의료, 경기 지원 등 모두 11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젊음을 불태우겠어요! 음하하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자처한 대구·경북지역 젊은이들이 지난 8월 10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모여 자원봉사자로 나선 이유에 대해 말하며 밝게 웃었다.

자신의 열정을 '확 불사르고 싶다'는 젊은 자원봉사자 5명은 이날 유니폼 색상별로 모이자는 갑작스러운 취재 요청에 적극 응했다. 대구스타디움에서 경기 지원을 하는 자성규(28·대구대 관광경영학과 졸업)씨와 안내를 맡은 조영원(22·경주대 한국어교원학과 3학년)씨는 각각 하늘색과 연하늘색 유니폼을 입었고, 안전요원인 이희령(22·대구가톨릭대 지리교육과 3학년)씨는 노랑색 유니폼을 입었다.

대회선수촌 영어통역 자원봉사자인 이승빈(23·경북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씨와 IAAF 지정 본부호텔인 인터불고호텔 영어통역 자원봉사자인 김계현(22·계명대 KAC학부)씨는 붉은색 유니폼을 입었다.

대학생 봉사자들은 소중한 여름방학 반납

"솔직히 중고생 때는 학교성적 때문에 형식적으로 자원봉사를 했어요. 대학생이 되어 봉사활동을 하며 진짜 봉사가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됐는데 마침 제 고향 대구에서 세계적인 대회가 열린다잖아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고향을 위해 봉사를 할까 싶었죠."

대학생활을 하는 경주에 이어 '이번엔 대구'임을 강조하는 조영원씨의 말에 자성규씨도 맞장구쳤다.

"저는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처음 자원봉사를 하면서 국제행사 자원봉사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그때의 가슴벅참을 잊을 수 없어서 이후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자원봉사 참여신청을 했어요. 이번에도 대구육상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신청했죠."

자성규씨는 항공사 승무원 취업 준비를 하며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구육상대회 대학생홍보단원(졸업 전 가입)으로도 활동하며 바쁘게 지낸다.

자씨와 같은 대학생홍보단원인 이희령씨는 포항이 고향이다. 그는 동생과 친구 등 5명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킨 '열혈봉사자'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권유한 것은 대구육상대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대구세계육상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 가운데 첫번째로 도착한 호주선발대와 이들을 환영하는 호주서포터즈. 호주서포터즈는 대구시 남구 대명 9동의 남녀노소 자원봉사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10대부터 80대까지 '세대 간 교류의 장'

이승빈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신문부장이기도 하다. 그는 "'대구에서 육상대회가 열린다더라'라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공부하듯' 대구육상대회에 대해 알게 됐고, 자원봉사 참가신청을 한 것은 물론 대학신문의 지면을 통해서도 열성적으로 대구육상대회를 알리는 일을 해 왔다.

김계현씨는 지난해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때도 영어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그는 "대학생 신분으로 제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대구육상대회 자원봉사라고 생각했다"며 눈을 반짝였다.

"지난해 8월 열린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서도 정말 상상 이상의 보람을 느꼈어요."

이 자리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20대 젊은이지만 이번 대구육상대회에는 만 18세 이상의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이희령씨는 그가 맡은 안전 분야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이 '이모·삼촌'들이라고 전했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자원봉사를 하는 이모·삼촌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뜨거운 애향심에 감동받았어요. 우리 같은 새내기 자원봉사자들도 그분들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 나중에 새내기들에게 모범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영원씨도 비슷한 경험을 전했다.

"전 '이모님'들이 단체로 계모임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순간 웃음이 빵 터졌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자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금세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먹을 걸 싸 와서 다른 분들까지 챙겨 주시니까요. 경력이 오래된 분은 1988년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도 계세요. 이분들의 경험을 바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접할 수 있나 싶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렇게 보람을 얻고 있는 이들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일단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황금기'인 이번 여름방학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대구육상대회 개막일은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27일이지만 방학기간 중에도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장에 많이 오셔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대구스타디움으로 매일 오가야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도심에서 먼 대구스타디움까지의 출퇴근도 걱정이다. 특히 경기지원을 맡은 자성규씨의 경우 오전 7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여의치 않다. '호프집 매니저' 아르바이트도 대회 기간 중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자원봉사"라며 '젊음을 불사를' 태세인 이들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바람을 전했다.

"많이 오셔서 경기를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요. 경기 시작되고 관중들이 우르르 일어나면 지켜보는 저희들 가슴이 우르르 무너져요!"

이렇게 가슴 뜨거운 자원봉사자들이 대구 곳곳을 누비며 대구육상대회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들을 만나러 대구 갈 채비를 하자. 대구육상대회 입장권은 아직도 남아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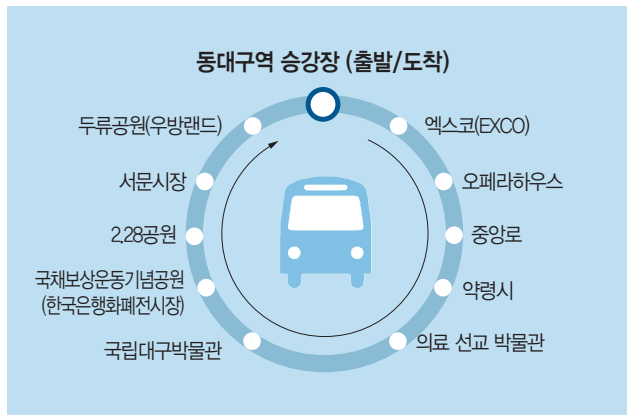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 도심을 순환하는 2층버스가 동대구역 앞에 서 있다. 이곳에서 출발, 하루 4차례 도심관광명소 11곳을 돌아보는 2층버스가 대구육상대회 기간에는 야간운행도 하게 된다.

육상경기도 보고… 시티투어도 즐기고…

2층버스 주야간 다른 코스 운영… 관광객 2천11명에게 경품 이벤트도

대구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올해를 '대구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대구 지역의 관광명소들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이번 대구육상대회를 '관광도시 대구'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아 국내외 여행객들의 발길을 대구로 이끌기 위한 이벤트도 선보인다.

대구 도심순환 버스 운행코스

국내외 관광객 위해 대구 도심 2층버스 야간운행한다

자유롭게 승하차하며 도심 곳곳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대구 도심의 명물인 대구시티투어 2층버스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아 임시 야간운행한다.

지난해 5월 운영을 시작한 대구시티투어 2층버스는 평소 하루 4차례(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4시) 동대구역을 출발해 엑스코–오페라하우스–중앙로–약령시–의료선교박물관–두류공원·우방랜드–서문시장–2·28공원–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한국은행–금융화폐박물관–국립대구박물관을 거쳐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오는 약 2시간에 걸친 시티투어코스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낮코스에다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육

상대회 기간 중에는 2차례 야간코스(저녁 7시·9시)를 더하게 된다.

야간시티투어는 코스도 낮과 다르다. 세계육상선수권선수촌을 출발해 대구스타디움–수성못–월광수변공원–두류공원·이월드(우방랜드)–2·28공원–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한국은행을 거쳐 선수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낮동안의 시티투어와 마찬가지로 정류장마다 자유로운 승하차가 가능하며, 대구육상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나 임원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2층버스 탑승을 위한 밤낮 구분 없이 정상요금이 ▲초등학생·경로우대증소지자·국가유공자·장애우 등 3천원 ▲중고생 4천원 ▲대학생과 일반인 5천원이다. 물론 할인요금도 다양한 기준으로 제공한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철도·고속버스 승창권 소지자 ▲외국인관광객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초등학생 등이 2천4백원, 중고생이 3천2백원 대학생과 성인이 4천원이다.

운행문의 및 예약 대구시설관리공단 www.daegucitytour.or.kr ☎053-603-1800

대구육상대회 참가자 통한 '관광 대구' 세계에 알리기

조선DB

대구약령시의 한약 달이는 모습 시연.

세계의 눈이 대구로 쏠리는 대구육상대회는 '관광도시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데 절호의 기회다. 이에 따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각국 미디어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임원·동반자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국내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투어'가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경주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날은 참가인원을 2백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미디어 투어' 참가자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석굴암, 불국사, 경주국립박물관 등 경주 지역의 우리 문화유산을 둘러보게 된다. '미디어 투어' 참가신청은 8월 25~29일 메인프레스센터와 포토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한다.

IAAF 임원·동반자 가운데 여성 동반자를 위한 '레이디스 프로그램'이 8월 31일 마련된다. 대구조직위는 '레이디스 프로그램' 참가인원을 약 1백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경주 일원의 전통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방문해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보여 준다.

'IAAF 동반자 프로그램'은 모든 IAAF 임원 가족과 동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회기간 중 3일에 걸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1회(8월 29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회(8월 30일) 팔공산 동화사, 3회(9월 2일) 대구 약령시 및 대구한의대학교 한방검진 등으로 구성된다. 대구시내와 인근의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한방의료관광'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된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www.daegu2011.org ☎053-803-9000

'대구가 팡팡 쏜다' 외지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박경아 기자

대구방문 이벤트를 소개하는 대구 동성로 관광안내소 통역요원들.

대구시는 '대구 방문의 해'를 맞아 대구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1, 대구가 쏜다'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경품행사 참여는 대구시 관광명소 방문과 스탬프 확인으로 가능하다. 대구시 지정 관광명소 34개소 중 2개소를 방문해 스탬프를 확인받아 응모하면 된다. 응모권은 지정 관광명소와 관광안내소, 코레일여행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다. 아쉽게도 대구시민은 참여할 수 없으며, 대구시민을 제외한 국내외 관광객이 대상.

대구시는 오는 12월 공개추첨을 통해 모두 2천11명에게 자동차, 3D TV, 노트북, 전통시장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경품행사는 대구 방문의 해 공식후원사인 대구은행과 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 등 지역기업이 후원한다.

대구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포털사이트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경품행사를 홍보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 여행센터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구시 김병두 관광문화재과장은 "대구는 산업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수많은 문화유적과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관광도시"라며 "경품이벤트로 대구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관광 대구'로도 부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대구방문의 해 홈페이지 www.visitdaegu.or.kr
2011 대구 방문의 해 사무국 ☎053-601-5091

www.cct.go.kr
행사문의 | 02-3704-3430

아시아문화주간

Asian Culture Week

2011. 8. 22(월)~8. 28(일) 광주광역시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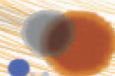
아시아 청소년 문화축전
8월 22일(월)~28일(일) 광주광역시 일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아시아문화마루, 첨단 쌍암공원)

아시아 문화이해 공개강좌
8월 26일(금)~27일(토)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심포지엄 : 8월 23일(화)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
전시 프로그램 : 8월 23일(화)~26일(금)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
8월 26일(금)~28일(일) 광주광역시 일대
(아시아문화마루, 첨단 쌍암공원, 빛고을 시민문화관, 금남로 공원)

아시아 문화포럼
8월 22일(월)~24일(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아시아 어린이 합창단
8월 28일(일) 첨단쌍암공원

기획특집

아직도 학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시대입니다. 어렵게 대학을 마쳐도 취직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 한 명꼴입니다. 여기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인생을 멋있게 엮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회가 공정사회입니다.

모든 배움을 독학으로… '성공을 든 남자'

건강 때문에 고교 중퇴… 경영학 책서 눈 뜬 마케팅으로 성공 발판

강석창 소망화장품 대표는 건강 때문에 상고를 중퇴했다. 병은 그가 번듯한 직장을 갖는 것도 막았다. 독학으로 마케팅을 공부한 그는 창의적인 광고와 제품개발로 중가 화장품 시장에서 우뚝 섰다. "대학을 가지 못한 것보다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는 그는 순익의 30퍼센트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서경리 기자

건강 때문에 상고를 중퇴한 강석창 대표는 창의적인 광고와 제품으로 오늘의 소망화장품을 일구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먹은 상한 과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다. 그 아이는 식중독을 일으켰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치료약을 장기 복용할 수밖에 없어 온몸에 만성적으로 두드러기가 나는 '만성 담마진'이라는 질환에 시달렸다. 시력도 떨어지고 몸이 급격히 쇠약해진 그는 덕수상고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다. 소망화장품 강석창(50) 대표의 얘기다.

소망화장품은 외국 브랜드들이 즐비한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토종 화장품 회사다. 지난해 매출은 1천1백91억원, 순익 61억원이었다. '꽃을 든 남자', '다나한', '십장생' 등 남녀 화장품과 헤어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창립 20년째로, 외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끄는 국내 시장에서 꿋꿋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강석창 대표는 업계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그가 사업가가 된 계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소위 말하듯 '가방끈이 짧아'서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취업 어려워 토종 화장품 회사 만들어

"건강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니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취업할 엄두도 내지 못했죠. 미용실에 헤어 재료를 납품하던 아버지 일을 돕곤 했습니다. 또래의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했지만, 저는 그 친구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권 객장에 나가서 하루종일 하염없이 앉아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경제 신문을 스크랩하면서 회사를 분석하는 노하우, 사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죠."

군대에 입대해서도 지병 때문에 11개월 만에 조기 전역을 한 강석창 대표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었다.

강 대표는 '과일나라'로 유명한 현대화장품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해 지금의 소망화장품을 세웠다.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고 싶었

지만 신생 회사라는 점을 감안해 애초 강점이었던 헤어제품을 먼저 팔았다. 경제 신문을 열심히 읽고, 경영학 책을 독학한 그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회사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때마침 한 방송사에서 〈꽃을 든 남자〉라는 영화를 상영했는데, 좋은 카피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주고 샀다. 탤런트 김혜수, 축구 선수 안정환을 앞세운 '꽃을 든 남자'라는 광고 카피는 이렇게 탄생했다. 그의 마케팅 예상은 적중했다. 사람들은 신선한 광고 카피에 주목했고, 제품 매출이 늘었다.

'꽃을 든 남자' 카피 사들여 마케팅 성공

강 대표는 "남들이 움츠릴 때 오히려 과감하게 광고를 했다"며 "IMF 외환위기 때도 광고 비용을 줄이지 않았고, 인지도가 낮은 회사를 홍보하는 대신에 제품의 카피 광고를 통해 회사 이미지를 쌓아 갔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소망화장품은 '다나한', '남자의 주름은 나이와 바람기의 상징일 뿐', '주름은 물려받지 마세요' 등 다양한 제품 및 광고 카피를 내놓았다.

소망화장품은 2000년 들어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얻었다. 당시 국내 화장품 시장은 '미샤', '더페이스샵' 등 저가 화장품이 등장해 기존 업체들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강석창 대표이사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뷰티크레딧'이라는 브랜드숍을 열었다. 소망화장품이 생산하는 다양한 중가(中價) 화장품을 한곳에 모아 판매하기 위해서였다.

조선DB

강석창 대표이사는 2009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63빌딩에서 열린 '국제기아대책기구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2005~2009년 매출액의 1%인 23억7천만원을 쾌척했다.

'뷰티크레딧'은 현재 국내 4백여 개, 해외 10여 개국에 8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강 대표는 2007년에는 한국도자기의 자회사였던 '로제화장품'을 인수해 한방 화장품 생산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 회사는 최근에 홍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RG II'라는 화장품을 선보여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홍삼이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SCI급 논문에 게재된 상태다.

"홍삼 화장품을 기획한 것이 벌써 12년 전입니다. '인삼, 홍삼 제조공장 생산라인의 아줌마들 피부가 유난히 좋다'는 식약청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홍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원광대 생명과학연구소의 박종군 교수 연구팀이 홍삼 연구를 하고 있기에 함께 했죠. 결국 홍삼 사포닌 성분 중에 'RG2'라는 것을 피부에 투입하면 피부 세포의 수명이 85퍼센트 연장된다는 것을 밝혀냈고, 화장품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제품의 출시로 우리 회사가 다시 한 번 도약하리라 확신합니다."

회사 순익 30퍼센트 기부… 재산 사회환원 실천

흔히 회사의 CEO라고 하면 번듯한 대학을 나와 외국에서 유명 경영대학원 하나쯤은 나온 이들을 떠올린다. 강석창 대표에게 '고등학교 중퇴가 후회스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남들이 다 가니까, 주위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요. 저는 건강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굳이 대학에 갔더라면 하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지병 때문에 시력이 약해져 책 읽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사람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해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대학원을 가지 못한 것보다는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지 못한 것이 아쉽죠."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부에 관심이 크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강 대표가 회사를 세운 이유 중 하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소망화장품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실로암안과병원, 월드비전 등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고, 회사 순익의 30퍼센트를 무조건 사회에 환원한다.

'순익의 무려 30퍼센트를 떼 주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회사 이름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소망이 사회에 전달되고, 많은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아깝지 않냐고요? 능력이 되면 더 해야지요." G

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간판보다는 실력으로… 37년간 한 우물

수시로 매장에 혼자 들러 식품관리·유통과정 등 직접 현장 체크

전남 완도군의 한 작은 섬 출신인 최병렬 대표는 37년 동안 신세계에 몸 담아 온 '신세계맨'이다. 그는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 1974년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했다. 당시 유통업계에는 대졸 사원이 흔하지 않았고, 고졸 사원도 승진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는 종종 "신세계에 입사한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

동아DB

최병렬 대표는 틈나는 대로 '음식만화'를 탐독한다. 최 대표는 "만화책에서 식품을 다루는 기본을 배웠다"고 말했다.

세계 유통업계에서 한국 시장은 '연구 대상'으로 꼽힌다. 월마트, 까르푸, 코스트코 등 세계적인 대형할인점 업체들이 야심차게 들어왔다가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아예 철수하거나 매장을 잇달아 폐점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글로벌 유통업체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할인점 업체들이 확고하게 시장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이마트다. 신세계가 1993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 이마트는 현재 매장 수 154개(중국 점포 25개 포함), 연매출(2010년) 12조원으로 국내 1위의 할인점이다. 올해는 매출 14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고속성장에 일조한게 가장 큰 보람"

이런 이마트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고졸 사원에서 CEO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인 최병렬(62) 대표다.

전남 완도군의 한 작은 섬 출신인 최 대표는 37년 동안 신세계에 몸 담아 온 '신세계맨'이다. 그는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 1974년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했다. 당시 유통업계에는 대졸 사원이 흔하지 않았고, 고졸 사원도 승진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는 종종 "신세계에 입사한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

최 대표는 고졸 말단사원에서 시작해 인사과장, 영등포점(백화점) 업무부장, 특판사업부 영업1팀장 등을 거쳤다. 신세계는 1990년대 초 할인점 사업에 진출, 1993년 이마트 1호점(창동점)을 개점했고 이후 국내 최대 할인점 업체로 성장했다.

입사 후 백화점 부문에서 계속 일해 왔던 최 대표가 이마트 부문에서 일하게 된 것은 1996년. 최 대표는 총무팀 부장, 이마트 분당점장과 서부산점 점장, 판매담당 이사·상무, 판매본부장 등을 거치며 이마트를 이끌어 왔다.

이후 그가 신세계푸드로 옮기기 전까지 8년 동안 점포 수는 4개에서 72개로 늘었다. 그는 "이마트 초기 고속성장에 일조한 것이 30여 년의 직장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국내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잇달아 대형할인점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마트는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국내 할인점 업계를 이끌어 왔다. 백화점만 운영할 당시 매출면에서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쇼핑에 뒤지고 있던 신세계는 이마트의 성공으로 국내 유통업계의 '2강(强)'으로 떠올랐다.

조선DB

최병렬 대표(가운데)가 지난 4월 동반성장 상품박람회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 대표는 2004년 12월 승진과 함께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 부사장을 맡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신세계푸드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는 등 몇 년간 이마트와 멀어졌지만, 2009년 12월 신세계 이마트 부문 대표이사로 친정에 복귀했다.

당시 최 대표가 국내 1위 할인점의 대표이사로 기용된 것은 외부보다 신세계 조직 내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한다. 간판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실적을 내고 높은 성과 및 기여도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도 높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신세계 내에서 '야전사령관'으로 통한다. 그는 인사와 총무, 영업 현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사내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임직원들이 어떤 업무든 적당히 해서는 최 대표에게 통하질 않는다고 한다. "내 눈높이에 맞추려면 직원들이 힘들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회사내 모든 부문을 꿰뚫는 야전사령관

그는 "좋은 CEO는 야전사령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무실에 앉아서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경영인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특히 유통업체 대표로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유통 흐름과 실전 감각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기업을 이끌 역량을 잃게 됩니다."

최 대표는 지금도 식품관리, 유통과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일일이 체크하는 일이 잦다.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매장을 둘러보는 일도 부지기수다. 최근에는 이마트 본사에 일반 가정의 부엌을 본뜬 '테이스트 키친(Taste Kitchen)'을 설치해 제품 맛을 직접 점검한다.

점심 약속이 없을 때는 테이스트 키친을 찾으며, 신상품 도시락 시제품도 직접 맛보고 평가한다. 최 대표는 "이마트의 독자적 상품을 전문화·다양화해야 고객이 지속적으로 이마트를 찾게 된다고 생각해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장인정신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신세계푸드 대표로 일할 당시엔 전 직원에게 일본 만화 <미스터 초밥왕>을 읽도록 했다. 초밥요리사로 성공한 주인공에게서 장인정신을 배우라는 취지에서였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금연령을 내리고 수시로 흡연 여부를 체크했다. 음식을 다루는 회사 직원들이 담배 때문에 혀와 코가 둔감해지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신세계푸드의 업무 중 하나인 구내식당 운영에 충실하기 위해 CEO로 재직하는 동안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세우기도 했다.

이마트는 세계 할인점 업체들의 각축장인 중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1997년 2월 상하이에 첫 점포를 낸 이후 현재 이마트는 중국에 2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최 대표는 "중국 서부 내륙과 화북지역에 점포를 신설하는 등 2015년까지 중국 점포 수를 45개로 늘릴 예정"이라며 "중국 외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점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한국형 할인점 외에도 창고형 매장과 인터넷쇼핑몰, 교외형 대형쇼핑센터 등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대표는 신사업과 해외매출의 비중을 전체의 절반까지 높이고, 다양한 쇼핑채널을 가진 글로벌 종합 유통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2020년에는 매출 6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G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기능인 처우 좋아져야 학력문제 해결"

스위스 시계산업처럼 40~50년 외길 걸어온 최고 기능인들 많아야

김영모 대한민국명장회 회장은 고1 때 학업을 그만둔 후 40년간 빵과 과자를 만들면서 김영모과자점을 매출 1백50억원대의 업체로 키웠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면서 "젊은이들의 재능과 잠재성을 일깨워 줘야 하는데 대학 진학만 강요하는 부모들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모 회장은 '기술을 배워 성공하겠다'던 어린 시절의 결심대로 제과명인이자 사업가로 성공했다.

소년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이혼을 했다. 의붓어머니 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는 동안, 소년은 생모와 만날 날만을 꿈꿨다. 생모만 만나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날 무렵 처음으로 생모를 만났을 때 꿈은 사라졌다. "아들 하나뿐"이라며 소년의 형만 데리고 재혼했던 생모는 그를 거둘 수 없었다. 소년은 밤새도록 울었다. 떠나는 생모의 등을 바라보면서 소년은 '나는 혼자'라는 생각과 함께 처음으로 '기술을 배워 성공해야겠다. 성공해서 뒤틀리기만 한 내 인생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9세에 자신의 이름 건 '김영모과자점' 열어

1970년, 고등학생이 된 소년은 몇 달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접었다. 더 이상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 수 없었다. 그가 택한 곳은 빵집이었다. 어린 시절 학교 앞 빵집 진열장에 가득 쌓인 빵을 보며 군침을 삼켰던 기억이 그를 빵집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이 소년이 대한민국명장회 회장인 김영모(58) 김영모과자점 대표다.

지방의 작은 빵집을 전전하던 그는 1973년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삼선교 나폴레옹과자점, 무교동 보리수제과점 등을 거쳤다. 선배들은 기술을 전수하는 데 인색했다. 배합비율 같은 것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고, 정작 중요한 공정에서는 등을 돌리고 만들었다. 남들이 퇴근한 후 그는 선배들의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연습했다.

어느 날 공장장이 출근하지 않자 주인은 그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날 그가 만든 케이크는 전부 팔려 나갔다. 처음으로 그는 '아, 내게 소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1982년, 스물아홉 살 때 그는 서울 서초동에 자기 이름을 딴 과자점을 열었다. 문을 연 지 30년이 된 오늘 김영모과자점은 서초본점을 비롯해 네 개의 매장과 샌드위치카페 등을 거느린 매출액 1백50억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8월 4일 아침 김영모 대표를 만났다. 김영모 대표는 부모의 이혼 때문에 받았던 상처, 고1 때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일 등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학력 때문에 콤플렉스를 느낀 적은 없는지 물어보았다.

"내가 처한 상황과 위치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런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학교 공부에 한정하니까 학력 콤플렉스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백화점이나 은행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서비스에 대해 생각하고, 회계·경영 등 제가 모자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 늘 책을 읽습니다. 공부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등을 통해 평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학력 콤플렉스 같은 건 생기지 않습니다."

김영모 회장의 작은아들 영훈씨(왼쪽)는 프랑스국립제과학교를 나와 제빵사의 길을 걷고 있고, 큰아들 재훈씨(가운데)는 김영모과자점의 경영을 맡고 있다.

옛날 학교 동창을 만나면 '괴리감' 같은 걸 느끼지는 않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과거에는 동창회에 나가면 고시 합격해서 고위 공무원이 됐거나 대기업 중역이 된 친구들이 좀 거들먹거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좀 마음이 상하죠. 그럴 때면 웃으면서 '야, 목에 힘 좀 빼라'고 말하곤 했죠. 그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는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는 정년이 없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다. 큰아들 재훈(31)씨는 재료구매, 창고관리, 제품출고 등 말단사원 업무부터 시작해 지금은 기획·마케팅·점포관리 등을 맡고 있다.

작은아들 영훈(30)씨의 국내 학력은 중1 중퇴다. 어려서부터 제빵일에 재미를 느꼈던 그는 프랑스국립제과학교를 나와 제빵사의 길을 걷고 있다. 2003년 프랑스제과월드컵에서 개인상, 스위스 국제기능올림픽 제과 부문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모 대표는 "영훈이를 비롯해 우리 과자점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면서 "젊은이들의 재능과 잠재성을 일깨워 줘야 하는데 대학 진학만 강요하는 부모들이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학력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능인에 대한 처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가 바뀌어도 스위스 시계산업이 명성을 잃지 않는 건 50~60년 동안 시계일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은 기능공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명품시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바람에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장인으로 기능이 절정에 달할 때인 55~60세면 정년퇴직을 강요하거나 급료를 터무니없이 깎는 바람에 기능인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기능인을 예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는 기능인을 박대한다면, 누가 기능인이 되려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제2의 성장을 이룩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국보급 노하우 가르칠 '명장학교' 설립해야"

김영모 대표는 지난 3월 제10대 대한민국명장회 회장에 취임했다. 명장(名匠)은 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술 발전에 공헌한 기능인을 일컫는다. 현재 2백67개 분야 4백96명의 명장이 회원으로 있다.

명장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김영모 대표는 명장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후대에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법적으로 15년이면 명장이 될 수 있지만, 40~50년 외길을 걸어야 명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축적된 지식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마이스터고(高)와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정부에 명장학교 설립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명장학교는 최고의 기능인들이 자기가 가진 국보급 노하우를 후진에게 가르치는 장(場)이 될 것입니다." G

글·배진영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학벌보다 전문성과 인성이 먼저죠"

'노력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 신조로 항상 최고의 목표로 달려

정재금 지점장은 KB국민은행을 대표하는 젊은 여성 리더다. 고교 졸업 후 입사한 그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동기들보다 평균 8년이나 일찍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정 지점장은 "학력이 아닌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최근 은행권 내 고졸 채용 바람을 환영했다.

정재금(46) KB국민은행 분당정자지점장은 중학교 시절 공부를 잘했지만 가정형편상 대학의 꿈을 접어야 했다. 대신 서울여상에 입학했다. 1983년 그는 고교 졸업과 동시에 주택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주택은행은 2001년 국민은행으로 통합됐다.

"서울여상의 경우 학교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당시 은행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선배들이 잘해 놓은 덕분이죠. 일하면서 특별히 학력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러나 여성 지점장이 되기까지에는 정 지점장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당시 신입사원의 경우 대졸자는 처음부터 5급 행원이지만 고졸 출신의 경우 6급 행원으로 입사했다. 더구나 고졸 출신 여자는 남자보다 한 등급 낮게 직책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 고졸 출신 여직원이 남자 직원과 직급이 같아지려면 반드시 행원전직시험을 봐야 했다.

취업 당시 남아 있던 남녀차별도 실력으로 극복

정 지점장은 행원전직시험을 통과한 후 책임자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며 당당히 실력으로 승부했다. 책임자시험은 관리직을 맡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다. 만 28세 때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나온 남자 직원들도 3개월간 여관에 투숙하며 고시처럼 공부해야 겨우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다.

"제 신조가 '노력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입니다. 항상 최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뭔가 이뤄져요. 이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항상 욕심을 갖고 일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업무 능력도 뛰어났지만 늘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2002년 12월 '국은인상'을 수상했다. 국은인상은 매년 국민은행이 각 분야별 우수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매우 큰 영예로 여겨진다. 이후 2004년 KB국민은행 분당시범단지 지점장으로 발탁됐다. 입사 동기들에 비해 평균 8년이나 빠른 승진이었다. 당시에는 여성 지점장이 매우 드물었기에 더욱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처럼 각종 차별을 딛고 당당히 여성 리더로 성장한 그는 최근 은행권 내 특성화고 출신 채용 방안을 적극 환영했다.

장은주 기자

정재금 지점장은 "학력 인플레가 심각한 요즘 정부 차원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지닌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에서 상고 출신 후배들을 더 이상 뽑지 않아 안타까웠어요. 학력 인플레가 심각한 이때에 간판 따려고 대학을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특성화고에 입학해 실력을 갖춰 온 학생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취업문을 열어 주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더욱 확산돼 열정 있고 능력 있는 후배들이 금융권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제남 기자

"고졸채용 뿌리내려야 학력거품 사라져"

전문지식 갖추고 자신의 일을 최고로 잘하려는 '애직심' 가져야

윤생진 선진D&C사장은 공고 졸업의 학력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전무까지 올라갔던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나왔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승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면서, 학력 차별에 앞장서는 기업에게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한다.

윤생진(60) 선진D&C 사장은 '고졸신화'의 주인공이다. 목포공고를 졸업한 후 1978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그는 특진을 거듭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전무까지 지냈다. 2010년 인재개발원 전무를 끝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나온 그는 이후 선진D&C를 설립, 창조경영과 녹색성장 문제를 천착하고 있다.

윤 사장은 최근 은행 등의 고졸 채용현상에 대해 "대통령이 조금 강하게 얘기하니까 반짝하다가 내년쯤이면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그는 학력 인플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취업 후 6년이 지나면, 직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해 고졸자도 호봉과 승진 등에서 대졸자와 같은 대우를 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대학 나오지 않아도 6년 후면 대졸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대학 가려고 그렇게 기를 쓰겠습니까?

특히 승진에서의 차별 철폐가 중요합니다. 생산현장에서 고졸 기능직은 왜 과장, 차장, 부장이 되면 안 됩니까? 승진이 안 되니까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가 없고, 그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왔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승진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나왔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승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윤생진 사장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업 후 6년이 지나면 대졸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기를 쓰겠느냐?"고 말한다.

학력 차별 철폐를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관심입니다. 대통령이 전경련·경총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학력 차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학력 차별을 철폐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졸 출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본인의 노력 외에는 다른 게 없지요. 남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20년간 4시간 이상 자지 않았고 20년간 TV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 중 고졸 출신이라는 데서 오는 괴로움은 없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결국 주경야독하면서 야간대학, 야간대학원을 나왔지만 '영원한 고졸'이더군요.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따라다녔어요. 아마 한강물의 3분의 1은 내가 흘린 눈물일 것입니다."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중졸, 고졸, 혹은 전문대 출신 젊은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첫째,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 분야에 미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직심(愛職心)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고로 잘해내려는 마음이 애직심입니다. 그러면 윗사람은 그런 사람을 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 · 배진영 기자

"일찍 사회경험… 대졸간판 필요 못 느껴"

KTX·승용차로 전국의 경기현장 누비는 현재 생활에 만족

KBS N 스포츠채널의 공서영 아나운서는 '국내 첫 고졸 아나운서'다. 그는 요즘 케이블방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아나운서 가운데 한명이다. 한때 아이돌 가수로 활동해 많은 남성팬도 거느리고 있다. 공서영 아나운서는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방송 아나운서에 대한 통념을 깨고 있다.

공서영 아나운서는 "대학 졸업장이 없을 뿐이지 아이돌 가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블 스포츠채널 KBS N의 공서영(29) 아나운서는 '아나돌'이다. 아나돌은 '아나운서'와 '아이돌'을 합성한 말. 아이돌 스타처럼 수많은 팬을 몰고 다니는 아나운서란 의미도 있다. 트위터에서도 그는 'KBS N 아나돌'로 불린다.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 KBS N을 시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보기 위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시청자도 상당수다.

공서영 아나운서는 한때 아이돌 걸그룹 '클레오'의 멤버였다. 1999년 데뷔한 클레오는 SES, 핑클, 베이비복스와 함께 '걸그룹 1세대'를 형성했다. 상큼한 외모와 발랄한 노래로 남성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2004년 '정예빈'이란 예명으로 클레오에 합류해 '인 앤 아웃(In & Out)'이란 타이틀곡으로 한동안 TV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래가 좋아 대학 포기하고 보컬 트레이닝 받아

공서영 아나운서는 '국내 첫 고졸 아나운서'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KBS N 아나운서 선발 당시 세 차례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 80여 명 중 그를 포함해 4명만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다. 그동안 미인대회 출신 아나운서는 간간이 있었지만, 고졸에 아이돌 가수 경력을 가진 아나운서는 그가 유일하다.

경기도 평택의 한광여고를 졸업한 그는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대학 갈 성적은 됐지만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안 가기로 결심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의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웠다. 1남 3녀 중 막내인 그는 대신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다.

그는 "대학 진학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졸업장이 없을 뿐이잖아요. 지금도 대학 나온 친구들보다 뭐가 못한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 갈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노래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는 "오히려 아이돌 가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대학 나온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

았다"고 자부한다.

'국내 첫 고졸 아나운서'이지만 그는 입사 1년도 안 돼 KBS N의 대표 얼굴로 떠올랐다. 프로야구와 배구, 복싱 등 각종 경기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선수 인터뷰에는 어김없이 그가 등장한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 출장도 잦지만 열심히 쫓아다닌다. 인터뷰를 한 지난 8월 10일에도 그는 프로야구 방송 준비로 바빴다.

그룹해체 후 백수생활… 학원서 아나운서 훈련받아

지방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KTX를 타거나 승용차 편으로 내려간다. 지난달엔 서울에 머문 날이 이틀에 불과할 정도로 전국의 경기 현장을 누볐다.

"과거 아이돌 시절에는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바보'였죠.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방으로 가면 되니까요. 지금은 주로 KTX를 직접 예약하고 타고 가요."

고졸 출신의 아이돌 가수가 아나운서가 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그룹이 해체되면서 한 5년간은 백수로 지냈다. 집에서 야구 경기를 보면서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아나운서 학원을 1년 정도 다니면서 앵커, 리포터 역을 번갈아가며 뉴스읽기와 발성연습을 익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외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대개 방송사 아나운서 채용에는 '4년제 대학 졸'과 같은 학력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원에서도 전형을 코앞에 둔 '고졸 지망생'에게 학력제한 조항을 미리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 다행히 지난해 학력제한 조항이 폐지됐고, 그는 당당히 시험에 합격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나운서가 됐지만 처음 하는 조직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아이돌 가수로 사회생활은 해봤지만 직장생활은 처음이었다. '고졸'과 '아이돌'이란 꼬리표가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는 "처음에 적응을 못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며 "그래서 남들보다 인사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웃고 다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해 11월 입사해 아직 입사 1년이 채 안 됐지만, 공 아나운서는 지금의 바쁜 생활에 만족해한다. 그는 "아이돌 시절과 지금 생활을 딱히 비교할 수 없지만 아이돌 가수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래 좋아하지만 아이돌 시절로 돌아갈 생각 없어"

하지만 노래 자체에는 미련이 남아 있다. 실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노래를 좋아해서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PC방으로 달려가던 그였다. PC방에서 무턱대고 연예기획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2004년 아이돌 그룹 '클레오' 멤버로 데뷔하기 전에도 KBS 2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로즈마리〉의 삽입곡을 부르기도 했다.

사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도 노래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없는 형편에 대학 등록금도 비쌌지만, 등록금의 반의반이면 노래 연습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개 또래 가수들은 가수로 데뷔한 후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가는 분위기였다.

간판 스포츠 아나운서가 된 지금도 노래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다.

요즘은 노래 부르는 것 대신 매일 경기장을 찾아다니지만, 그는 "운동신경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수줍은 듯 말했다. 라켓볼이나 배드민턴 같은 구기운동 정도를 즐기는 편이라고 한다. 그는 "운동신경이 없는 대신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은 누구보다 좋아한다"며 "스포츠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웃었다. G

글·이동훈 기자

스포츠조선

공서영 아나운서가 지난 8월 10일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류중일 삼성 감독과 인터뷰하고 있다.

공기업 고졸채용 늘려… 유통·제조업 확산

한국동서발전·전기안전공사 등 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뽑아

고졸 학력으로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과거 고졸 인력이 담당하던 일자리라도 괜찮다 싶으면 대졸자들이 몰려든다. 고졸자들이 설 땅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고졸자들을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다. 학력보다는 일의 성격에 맞는 인력을 선택한다는 인사 철학이다.

조선DB

한국동서발전은 신입사원의 30퍼센트를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채용하고 있다. 사진은 합덕제철고 출신인 강동훈 씨(왼쪽)가 선배 직원으로부터 발전소 설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

한국동서발전의 울산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강동훈씨는 오는 9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현장실습생의 신분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강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들이 선망하는 대형 공기업의 정직원이 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강씨가 동서발전에 입사한 것은 지난 2월. 이미 대학에 합격하고 등록금도 냈지만 강씨는 동서발전에 지원했다. 대학에 가는 것보다 먼저 현장에서 전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대학은 그 후라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강씨는 "아무 목적의식 없이 대학에 가서 허송세월하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한시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며 "울산에서 야간으로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군대에 다녀와 고향인 당진의 발전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신입사원의 30퍼센트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로 채용한다는 '채용할당제'를 발표해 반향을 일으켰다. 발전과 관련이 깊은 마이스터고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관련 직무에 배치할 사원들을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동서발전의 채용할당제는 지난 2월에 최초로 현실화됐다. 신입사원 20명의 30퍼센트인 6명이 마이스터고 출신이다. 강씨는 마이스터고인 합덕제철고 출신이다. 고졸이라도 인사와 보수 등에서 전혀 차별이 없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4년간의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차이만 존재한다. 6개월간 현장실습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대졸 신입사원의 90퍼센트 수준인 2천2백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김낙교 동서발전 홍보과장은 "국내 기업들이 '열린채용', '학력제한 철폐'를 내세워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고졸사원 채용에 대졸 출신이 지원해 고졸 출신이 입사할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며 "동서발전의 선택이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퍼져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졸자 몰리자 고졸 '채용할당제' 도입

고졸 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8월 중에 고졸자 3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올 초 2백86명의 보조인력과 청년인턴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45명이 고졸이었다. 지적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지적 관련 고등학교 등과 산학협력을 맺어 고졸인력 채용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은 군산기계공고, 수도전기공고 등 5개 마이스터고와 협약을 맺고 신입사원의 20퍼센트를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뽑기로 했다. 먼저 재학생 20명을 추천받아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졸업 후 채용 때 우대하는 방식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올 하반기 공채 50명 중 20명을 마이스터고 출신에 할당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신입사원의 30퍼센트를 고졸 인력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신규 채용 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2백여 명을 고졸 인력으로 충원한다. 취업 후 급여와 처우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내부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에서도 고졸 출신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유통업계가 대표적이다. 대형할인점의 지점이 늘면서 발생한 신규 인력수요를 고졸 출신으로 수혈한 기업이 여러 곳 있다. 롯데마트가 대표적이다.

롯데마트는 2005년부터 고졸 사원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채용한 정규직 직원 3천5백명 가운데 1천3백명이 고졸이다. 채용 후에는 다른 정규직 직원과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 직급에 따른 보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근속년수가 채워지면 이 역시 사라진다. 고졸 사원 가운데 점포의 파트장까지 승진한 직원도 상당수 있다.

조선DB

롯데마트는 2005년부터 고졸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과 시설관리 등에 주로 배치되고 있다.

채용된 고졸 직원들은 점포에서 근무한다. 상대적으로 젊어서 의욕이 넘치고 매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석 롯데마트 홍보팀 과장은 "고객을 직접 접하는 대형마트 직원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태도나 성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고졸 직원들은 적극적이어서 회사로서는 만족스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롯데마트는 고졸과 초대졸 인력을 대상으로 1백명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학력과 성과 무관"… 민간기업도 적극 채용

AK플라자도 고졸 인력을 환영하고 있다. 2008년 삼성플라자를 인수한 후 고졸 직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영업과 시설 관리에 쏠리는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기획, 영업, 재무, 회계 등 다양한 직무에서 고졸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한양사이버대학에 입학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남 함안에 소재한 중소기업인 미래테크도 고졸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다. 직원의 절반이 고졸이다. 고졸이라도 대졸과 호봉이 같다. 초봉은 2천4백만원 수준으로 대기업 못잖다. 승진 등 인사 측면에서도 차별이 없다.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야간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한다. 고졸 사원이 주축이지만 2008년 창업 당시 4억원이던 매출액은 올해 1백30억원을 기대할 정도로 회사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미래테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으로 선정됐다. G

글·변형주 기자

SBS

MBC

KBS

드라마 속 '고졸 여주공'인 SBS <여인의 향기>의 이연재(김선아), MBC <반짝반짝 빛나는>의 황금란(이유리), KBS2 <동안미녀>의 이소영(장나라). 드라마에서 고졸 여주인공들은 현실과 부딪히지만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불합리한 현실을 치열하게 헤쳐나간다.

안방극장에 '고졸·지방대 출신 캔디' 뜨다

드라마 <여인의 향기> <보스를 지켜라> 등… 약자 대변하며 공감 이끌어

'스펙 강세'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안방극장에선 고졸 또는 지방대 출신 '캔디'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짱짱한 스펙을 자랑하는 라이벌도 고졸 캔디들의 열정과 노력 앞에선 무너지고 만다. 비록 드라마지만, 학력의 피로가 누적된 우리 사회에서 '고졸 캔디'들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년이다. 고졸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해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며 무시당한 세월이. 그래도 꿈이 있었다. 마당 있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언젠가는 결혼해 아이도 낳고 싶어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암이란다. 이름도 생소한 담낭암.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부장님은 여전히 구박을 멈추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녀는 5년간 품어 온 사표를 던진다. "개자식아"라는 통쾌한 욕설과 함께. 이 장면에 "속이 시원하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달 23일 시작한 SBS 주말드라마 <여인의 향기>의 이연재(김선아 분) 얘기다. 시청률 15퍼센트대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TV 드라마에 '고졸 여주인공'이 부쩍 늘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여인의 향기>의 이연재, MBC <반짝반짝 빛나는>의 황금란(이유리 분), 얼마 전 종영한 MBC <미스 리플리>의 장미리(이다해 분), KBS 2 <동안미녀>의 이소영(장나라 분) 등이 모두 '고졸 캔디'들이다.

이들 드라마 모두 고졸 여성이 겪는 아픔과 설움을 통해 '학력사회' 한국의 어두운 면을 조명한다. 학벌에 따라 위너(승자)와 루저(패자)가 갈리는 문제가 드러난다. 화려한 캐릭터를 앞세우는 트렌디 드라마의 틀을 깨고 있다.

전문직 여성 캐릭터의 화려한 학력에 반감 쌓여

이만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원은 "은행의 고졸 채용이 증가하는 등 고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관심에 비해 아직까지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녹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드라마에서는 전문직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여성의 성공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스펙 사회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고졸이 주인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씨도 "더 첨예해지고 있는 스펙사회 때문에 당분간 (고졸 주인공이) 주목을 받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졸 여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이연재는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해 왔지만 연봉이 2천만원 선에서 오르지 않고 있다. 상사에게 인격 모독과 성추행을 당해도 그저 참고 넘길 뿐이다. 장미리와 이소영은 고졸이라는 이유로 아예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소영의 말을 빌리자면 "처음부터 속이려 했던 건 아니다"며 "14년 동안 다녔던 원단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서른넷 고졸 출신인 그녀에게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상대적 약자' 고졸 주인공의 고군분투에 박수

정덕현 평론가는 이를 두고 "고졸 여성을 '약자 중의 약자'로 설정한 후 이들의 처지에서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극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실제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유독 이연재가 부장에게 사표를 던지고, 복수하는 장면을 언급한 글이 많다. "고졸이라고 해서 하는 일이 다르지 않은데, 나이 어린 대졸 동료가 연재를 무시할 때 너무 화가 났다"는 의견은 물론 "부장에게 엉덩이로 사과하라고 복수하는 장면이 너무 약하니 더 통쾌하게 그려달라"는 주문도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미스 리플리〉의 장미리는 드라마가 방영되는 내내 '민폐 캐릭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거짓말과 악행을 일삼았지만, 그녀가 극한으로 몰리기까지 겪었던 설움만큼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반짝반짝 빛나는〉의 황금란이 대졸 사원과 똑같이 일하고도 퇴직금을 대졸의 절반 수준으로 받아야만 했을 때는 "부자인 친부모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금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거짓말'과 '시한부 인생 판정' 등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삶이 달라진다는 점은 한계로 나타났다. 장미리와 이소영은 거짓말 덕분에 취업할 수 있었고, 이연재가 상사 면전에 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건 암 판정을 받아서다.

이만제 연구원은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고 해외유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깰 수 있도록 (드라마들이) 화두를 던져 주는 역할을 했지만, 뻔한 신데렐라 스토리로 끝나면 파괴력이 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력뿐 아니라 드라마에서 다루는 약자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G

글 · 임주리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취업준비생들도 공감하는 〈보스를 지켜라〉

지방대 출신의 취업과 애환 담아 '대리 만족'

SBS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SBS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의 여주인공 노은설(최강희 분 · 사진) 역도 취업 준비생들과 직장인들에게 '고졸 캔디' 못지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통장잔고 2만원과 카드값 20만원, 학자금 대출로 생긴 대출금만 1천만원인 지방대 출신 '발산동 노전설' 노은설은 방송 1회에서 시급 4천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취업준비생으로 나온다.

그는 취직을 위해 여러 회사에 면접을 보지만 번번이 '스펙'에서 밀린다. 자신의 열정과 자신감만큼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춤과 노래는 물론 무에타이까지 불사하지만 지방대 출신에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면접 시 질문조차 받지 못하는 등 비참함을 맛보게 된다.

결국 "'후진' 대학교 출신은 질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냐"며 반문하고, 면접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왜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한다. 면접관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노은설은 이를 계기로 당당함과 솔직함, 열정을 인정받아 대기업 비서실에 마침내 취업하게 된다.

드라마는 웃음과 눈물로 버무려져 있지만 그 속에 사회 풍자는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1회부터 '본방사수'하고 있다"는 취업준비생 장진영(29)씨는 "극중 노은설이 마치 내 얘기 같았다"면서 "지방대 출신 노은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페이소스와 카타르시스가 동시에 느껴졌다"고 방송 소감을 말했다.

대학원생 이민정(26)씨 역시 "기존 드라마에서처럼 단순히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기반으로 한 재벌2세와의 로맨스를 그린 게 아니라 우리 시대 '스펙 없는 88만원 세대 신데렐라' 얘기여서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노은설이 재벌의 후광을 받아 성공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성공하는 성공기가 그려진다면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스를 지켜라〉 제작진은 제작발표회 당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유쾌함도 얻지만 현실에서 스펙에 밀려 취업 장벽을 느끼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글 · 박근희 기자

'맞춤형 인재' 양성 통해 산업체와 '윈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과 경쟁력 강화 도와… '선취업-후진학' 대학도 늘어

우리 사회는 학력 차별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대졸 이상은 고졸보다 50퍼센트 이상 임금을 더 받는다. 이를 고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도 넓히고 있다.

중앙대학교에는 특별한 학부가 있다. 먼저 학생들의 면면이 일반 학부와 다르다.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이력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들어온 일반 학생과 다르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최소한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회인들이다. 수업이 없는 동안에는 직장에 나가며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이다. 지식경영학부가 그 주인공이다.

중앙대 지식경영학부는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따라 2010년 도입된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이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개설됐다. 직장에 다니면서 정규 대학과정을 이수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 9개교가 이 과정의 전형을 채택했으며 내년에는 20개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일하며 대학 다니는 '재직자 특별전형' 더욱 확대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한 대학들은 산업체 재직자들이라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대 지식

조선DB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마이스터고인 부산자동차고의 학생들과 이승희 교장.

2011학년도 대입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현황

구분	공주대		건국대	중앙대	명지대	한성대	국민대	가천대
학과	식물자원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신산업융합학과	지식경영학부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계열	농업계열	공업계열	경영계열	경영계열	경영계열	경영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모집 인원 (명)	30	30	66	145	40	37	60	65
전형 방법	서류면접	면접	서류면접	서류면접	서류면접	면접	서류면접 등	면접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졸대비 대졸 이상 월급여액 수준 추이 (기준 : 고졸=100)

출처 고용노동부

경영학부의 경우 '프리(Pre) MBA'를 표방하고 있다. MBA처럼 사례 분석 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의 현장 경력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김태성 중앙대 홍보팀장은 "학생들의 경력이 다양하고 문과와 이과의 구분도 없어 지식경영학부의 커리큘럼을 설계할 때 고민이 많았다"며 "산업현장 종사자인 만큼 경험은 풍부하지만 이론적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현장 경험의 체계화와 이론화를 통해 산업지식인을 육성하는 것으로 교육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본인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입학한 만큼 학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며 "학생과 교수들의 만족도 모두 높다"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 등록, 사이버대학, 야간 및 주말반, 사이버대학과 학점 교류 등 대학에 다양한 재직자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대학이 정한 학칙에 따라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특성화고의 계열별 학업 경로를 구축하고 재직자 특별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직장에 다니면서 진학할 수 있는 길은 또 있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으로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맺고 개설한 학과다. 현재 석사 과정 10개 대학, 학사과정 5개 대학, 전문학사 과정 5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료와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70퍼센트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계약기업과 학생들이 나누어 낸다. 참여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직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좋고 학생들은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윈윈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평생교육'도 활성화하고 있다. 성인들의 계속교육과 재교육을 강화해 학습과 학력, 일의 효과적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4개의 평생학습 선도대학과 7개의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마이스터고 양성도 학력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에 맞는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0년 도입됐다. 기술 명장을 길러내 산업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재도 산업체와 공동개발할 정도로 산업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학비와 기숙사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마이스터고 졸업자 전원 취업 목표로 다양한 혜택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지향하는 만큼 취업률도 남다르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전원을 취업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마이스터고 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기업들이 마이스터고와 협약을 맺고 졸업도 하기 전에 학생들을 채용하고 있다. 우수인재들을 '입도선매'하고 있는 셈이다.

졸업 전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향후 10년간 1천명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채용할 계획이고 삼성전자도 매년 1백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양사 모두 학자금을 지원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3천6백명인 2학년 학생 가운데 64퍼센트인 2천3백명의 취업이 이미 결정된 상태다. G

글·변형주 기자

기술장인이 우대받는 사회 만들어야

유럽 선진국은 실업계가 60퍼센트 이상… 대학은 '거품' 빼고 차등화를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은 2백여개, 2년제는 1백50여개에 달한다. 대학생 3백50만명 시대에서 대졸 학력은 더 이상 개인의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 지나친 학력지향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고등학교의 진로교육과 취업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확대와 보편화는 바람직한 대안이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은 서민의 대변자를 자칭하며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일부는 '반값'을, 일부는 '무료'를 주장한다. 대학교육이 백화점 세일품목이나 구호품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어쨌든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대졸자 수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도 없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고민거리다.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은 2백여개, 2년제는 1백50여개에 달한다. 대학생 수는 3백5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퍼센트가 대학생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더 이상 '고등교육 기관'이 아니다. '대졸 실업률'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실제 대학 진학이 1980년대 고등학교 진학보다 쉬워진 반면 대학생들의 평균 학력은 경악할 정도로 저하됐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률이 20퍼센트도 안 되던 시절의 대졸자들이 누리던 좋은 직장만 바라보고 있다.

인구 7퍼센트가 대학생… 자랑이 아닌 걱정거리

이 같은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학력지향적 사고다. 지나친 학력지향 현상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학 진학을 위한 지도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취업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18세기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인문계와 실업계로 2원화해 고졸자들의 직업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이런 선진국들에서도 과거 20~30년간은 고등교육의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다.

하지만 아직도 유럽에서 실업계는 전체 고등학교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우리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정책도 유럽 선진국 사례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는 좀더 현장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체와의 연계교육과 실습교육의 내실화도 절실하다. 스위스의 경우처럼 직업고등학교를 전일제가 아닌 소위 파트타임제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 정부가 교육부문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의 확대와 보편화도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계 고등학교도 미국과 같이 취업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을 위한 직업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은 굳이 대학에 진학해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장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경제적 자립을 영위할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자존감까지 만끽할 수 있다.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종합고교(종고) 체제의 부활을 심각하게 검토해 볼 때도 됐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와 취업을 위한 실업계가 한 학교에 공존하는 종합고등학교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육이 양적으로 폭발하면서 종합고등학교는 유감스럽게도 그 자취를 감춘 상태다.

물론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고교교육을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취업을 선택한 고교 졸업생에게도 대학의 문호가 개방되는 체제 아래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와 아울러 전국적으로 2백여개나 되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들의 기능별 차별화도 시급하다. 고등교육의 수난과 위기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현재 유럽 선진국의 대학들도 거의 재정난과 학생수준의 질적 저하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견실한 편이다. 그 비결은 바

조선DB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의 실습실에서 한 학생이 연마기를 사용해 용접자국을 다듬고 있다.

로 기능별 차별화에 있다. 하버드대나 스탠포드대 같은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도 있고, 실용적 기능교육에 역점을 둔 취업중심 대학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처럼 대학들이 하나같이 서울대를 모방하려는 풍토 속에서는 대학들의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

학력 철폐는 법이 아닌 사회적 관심으로 풀어야

능력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 고쳐야 할 병폐가 또 하나 있다. 바로 학력 철폐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까지 "정부가 먼저 학력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정치인들이 학력 철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는데 실소(失笑)를 금할 길이 없다.

학력 철폐는 하루아침에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고졸 취업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량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에 귀감이 된다면 그 또한 학력 차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고졸 출신 사원들이 유수의 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물론 학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학력에 대한 욕구가 교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도 있다. 그러나 이제 대졸이라는 학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현상은 지양해야 한다. 대졸이란 학력은 더 이상 개인의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몇 해 전 모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 수업이 안 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에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학력검사를 한 결과 이들의 평균 학력이 서울 시내 중학교의 3학년 평균 정도로 나타났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진정한 가치와 실용성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일단 아무 대학이나 가고 보자'는 생각은 대학의 희소가치가 있던 시절이나 통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에 큰 지장이 없는데 굳이 대학 진학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란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곧 오리라 믿는다. G

글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지난 8월 4일 슈퍼주니어 5집 발매기념 기자회견장에는 2백여명의 내외신 취재기자들이 몰렸다. 슈퍼주니어는 월드투어로 한류 확산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연중무휴 팬 곁으로… 이젠 '한류의 본류'

5집 '미스터 심플' 뮤직비디오 공개 1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 5백만 돌파

슈퍼주니어가 '국가대표' 글로벌 그룹이 돼 돌아왔다. 슈퍼주니어는 정규 5집 '미스터 심플'을 발매하고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하는 막강한 한류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난 8월 3일 공개된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뮤직비디오는 공개 1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5백만을 돌파했다. 컴백을 앞두고 무려 59개국의 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4일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5집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는 무려 2백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한국 매체는 물론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지에서 방문한 취재진들이 각자의 언어로 질문을 쏟아냈다. 유튜브 영상에는 앳된 미국 소녀부터 히잡을 쓴 아랍 여성까지 세계 각국의 팬들이 수줍게 "우리나라에는 올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슈퍼주니어의 각오도 '월드와이드'형이다. 이미 아시아투어로 50만명의 팬을 만난 슈퍼주니어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미국, 더 나아가 북한 평양에서까지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을지도 모를 각오지만, 지금의 슈퍼주니어라면 실현 불가능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년간 아시아투어 대성공… 월드투어 준비 중

당연히 그 비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리더 이특은 "월드와이드한 SM의 앨범 기획, 유튜브의 발달, 정성을 다한 아시아투어"를 비결로 꼽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앨범과 무대에 미국, 유럽 등지의 다양한 작곡가, 안무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 같은 초국적 콘텐츠가 SM의 프로듀싱과 만나 국적·인종에 관계없이 전 세계인들에게 매

혹적으로 다가선다는 것. 이 같은 콘텐츠는 전 세계에 '실시간' 전파되는 유튜브와 트위터 등의 네트워크로 '날개'를 달았다. 슈퍼주니어의 대표곡 '쏘리쏘리'는 조회수가 무려 2천만이다.

슈퍼주니어만의 강점은 '정성을 다한 아시아투어'에서 찾을 수 있다. "중화권에서 슈퍼주니어가 대세라더라"는 말이 들려온 지 2년여가 지난 상태. SM엔터테인먼트는 슈퍼주니어를 그 어느 그룹보다 직접 발로 뛰게 만들면서 지금의 성공을 이끌었다.

중화권서 선풍적 인기 얻은 뒤 일본에 '안착'

슈퍼주니어가 '슈퍼쇼'라는 이름으로 아시아투어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서울, 방콕, 상하이, 난징, 청두 5개 도시에서 총 10회 공연을 열었다.

다음해 '슈퍼쇼 2'를 마련한 슈퍼주니어는 서울, 홍콩, 상하이, 방콕, 난징, 베이징, 타이베이,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도쿄 10개 도시에서 총 17회 공연을 펼쳤다.

지난해엔 '슈퍼쇼 3'가 열렸다. 서울, 칭다오, 베이징, 호치민 등 13개 도시에서 총 20회 공연이 열렸다. 지난 3년간 15개 도시에서 열린 '슈퍼쇼' 전체 동원 관객은 50만명을 넘긴 상태다.

공백은 유닛(소그룹 활동)이 메웠다. 발라드 유닛 'KRY'는 도쿄와 타이베이에서 단독 콘서트를 따로 열었고, 중화권 유닛 '슈퍼주니어M'은 2008년 데뷔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앨범과 공연으로 활동 중이다. 멤버수가 많은 슈퍼주니어만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이다.

'슈퍼주니어M'의 활약은 눈부셨다. 2008년 경가왕 시상식, 동남경혹음악방, CCTV-MTV음악성전, 성광대전, BQ2008 홍인방 시상식, 음악풍운방 신인성전 등 시상식에서 인기그룹상, 최고그룹상 등을 휩쓸며 '최고그룹상'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슈퍼주니어M은 이후로 2장의 미니앨범을 더 내고 각종 중국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슈퍼주니어는 보통 한류그룹들의 진출 경로를 역방향으로 바꿨다. 일본에서 아시아 대표로 나아가는 기존 순서와 달리 슈퍼주니어는 중화권 인기를 먼저 얻고, 일본 시장에 '쉽게' 안착했다. 지난 6월 일본 첫 싱글 '보나마나(미인아)'는 발매 첫주 오리콘 위클리 싱글 차트 2위를 차지, 역대 한국 그룹 첫 싱글 사상 최고 수치를 경신하며 첫 출하량 10만 장을 돌파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음악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쏘리쏘리'부터 '미인아', '미스터 심플'까지 단순한 비트 위에 반복적인 후크를 이용한 펑키곡은 외국인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슈퍼주니어의 대표 색깔이 됐다. 10명의 멤버들의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눈을 현혹시키는 퍼포먼스 역시 슈퍼주니어 특장점이 됐다.

"국가대표가 된 마음으로… 아직 배고프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이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개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예능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는 슈퍼주니어의 활동도 자연히 급속도로 퍼져 나간 것 역시 슈퍼주니어의 해외 인기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미 중국, 대만 등에서 드라마를 찍은 바 있는 슈퍼주니어는 "일본에서도 예능, 연기 등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슈퍼주니어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도 매력을 한층 배가하고 있다. 벌써 데뷔 7년차,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굴곡도 많았지만 이를 훌륭하게 극복했다.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실적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럴 때도 있는 거지'라는 '미스터 심플'의 가사처럼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특은 "우리도 음원차트를 자주 체크한다. 음원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지만 일희일비하진 않는다. 예전에는 힘들었던 일도 이젠 멤버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이겨낸다. 예능을 많이 해서인지 웃음이 많아졌고, 웃음이 많아지니 실제로 행복해지더라"고 말했다.

굴곡을 이겨낸 슈퍼주니어의 전략은 '연중무휴'다. 슈퍼주니어는 "아직 배고프다. 국가대표가 된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하겠다. 미국 시장까지 공략하는 게 목표다.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강조했다. G 글 · 이혜린 (OSEN 엔터테인먼트팀 기자)

지속가능한 콘텐츠 생태계 만들자

유럽은 '콘텐츠 연합' 구성… 디지털 제작과 유통 결합해 주도권 잡아야

K팝 한류 스타들이 파리를 뒤흔들어 놓은 지 달포도 안 된 지난 7월 초, 영국 런던에서도 K팝 콘서트를 열어달라는 팬들의 시위가 열렸다. 한류의 바람은 확실히 거세다. 하지만 한류가 계속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려면 지속가능한 한류 콘텐츠의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지난 6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대중가요(K팝)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류 콘텐츠가 유럽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었다. 지난 7월 초에는 영국 런던에서도 K팝 콘서트를 열어달라는 팬들의 시위가 있었다. 유럽에서 한국의 대중가요가 실질적인 팬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 6월 16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주최 '디지털 아젠다' 회의가 열려, 유럽의 '창조적인 콘텐츠 연합'(Creative Contents Alliance)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얼핏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이 두 사안은 실제로 매우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지만, 한국의 대중가요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훨씬 컸다. 유럽인들의 높은 관심에 우리 한국인들은 놀랐고, 그것은 고무적이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계 스스로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또한 대중문화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대중문화계 스스로가 좁은 한국 시장을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아시아로, 세계로 시장을 넓혀 온 성과이기도 하다.

K팝 파리열풍은 디지털 미디어의 산물

그렇다면 유럽인의 반응이 모두 한류 콘텐츠에 긍정적일까? 유럽연합에서 콘텐츠 정책을 다루는 한 간부는 필자에게 한국의 대중음악이 유럽에서 지속가능한 콘텐츠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대중음악이 여러 문화현상 중의 한 하위문화(sub-culture)로 자리 잡은 사실은 놀랍다고 평가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유럽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의 유통이 가져온 산물이라고 지적한 점이다. 유튜브와 각종 사이트들이 콘텐츠와 결합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범위를 확산시킨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은 창조적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창조적 콘텐츠 연합' 사례가 그것이다. 창조적 콘텐츠 연합에는 필립스, EMI, 야후, BBC 등 유럽의 미디어 기업, 가전 산업, 콘텐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야말로 미디어, 콘텐츠, 정보 기업들의 동맹군이다.

이들이 연합체를 결성한 것은 콘텐츠의 디지털 제작과 유통을 주도하려는 데 있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전통적인 콘텐츠 유통에 비해 빠르고 저렴한 특징을 기회로 삼아 유럽의 콘텐츠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창조적 콘텐츠 연합이 새로운 이용자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역량·정보기술 융합한 생태계 필요

창조적 콘텐츠 연합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산업계가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을 용이하게 하여 그것을 재가공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BBC는 자국 내에서는 콘텐츠를 콘텐츠 제작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했다. 이러한 모델의 목표는 미디어 대기업과 콘텐츠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콘텐츠는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의 힘만으로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창조적인 콘텐츠는 이제 개방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콘텐츠와 정보기술을 연계하고 지적재산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창조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에서 비슷한 시기에 보여준 이 두 사건의 근저에는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유통이 자리잡고 있다. 유럽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경을 넘어 한국의 콘텐츠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개방적으로 활용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동시에

지난 7월 30일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 앞에서는 한류 팬들이 한국 K팝 가수들의 폴란드 방문을 기원하며 플래시몹 행사를 벌였다. 오른쪽 사진은 앞서 7월 9일 런던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렸던 'K팝 가수의 영국공연 촉구 시위' 모습.

보여주었다.

둘 다 디지털, 인터넷, 모바일이 가져온 콘텐츠의 개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디지털 사회,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콘텐츠의 변화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환경·임금체계 개선을

한류 콘텐츠의 기회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것으로 발전시키려면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특히 창조적인 콘텐츠 연합에서 드러나듯이 콘텐츠 기업만이 아니라 정보기술, 기존의 미디어 대기업 등이 개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한류로 확인된 우리나라의 콘텐츠 역량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 경쟁력을 융합하는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창의력 있는 디지털 인력과 R&D가 결합되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 창조는 이제 어느 한 개인만의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협업(collaboration)으로 이루어진다. 스타 인력도 필요하지만 수많은 스태프, 지원 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

콘텐츠 산업은 작품 프로젝트별로 인력과 자원이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프리랜서(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제작 환경은 아직도 아날로그적이고 열악하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 환경과 임금 등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 인프라가 우리에 비해 뒤떨어지고, 디지털 전자산업의 기반이 약한 유럽이 먼저 이러한 방향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우리야말로 디지털 미디어와 유통이 결합된 창조적 콘텐츠 연합이 절실한 때다. G

글·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봉사 펼친 'IT 인 살람' 팀

"인터넷·한글 가르치고 사랑도 교감"

세상은 넓고 봉사는 다양하다. 'IT 봉사'는 디지털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동시에 국내 IT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재단의 '대한민국 IT봉사단' 파견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에서 봉사를 펼친 'IT 인 살람' 팀을 소개한다.

IT 인 살람

IT 인 살람팀은 탄자니아 국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IT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의 마지막 날 교육생들은 봉사단원들을 위해 전통의상 '탕가'를 깜짝 선물했다.

"전 세계가 정보화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아프리카나 정보화 후발국가 등은 그 정보화의 물결에서 외롭게 정체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탄자니아의 수도 외곽 지역에서는 아예 컴퓨터조차 만져 보지 못한 사람의 수가 엄청납니다. 정보 빈국들이 하루빨리 성장하고 정보의 소외에서 벗어나려면 IT 인력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IT 인 살람(IT in Salaam·이하 IT 살람)' 팀의 단원으로 봉사를 다녀온 최은아(25·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씨의 말이다. 최은아씨를 비롯해 연경민(26·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이보연(24·부산대학교 전자전기통신공학부)씨로 구성된 IT 살람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중기 IT 봉사단'의 자격으로 동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 에스 살람(Dar es Salaam)으로 봉사를 다녀왔다.

국세청 공무원들 교육… 개인별 수준차 커

단원 3명의 봉사기관은 탄자니아의 국세청인 TRA(Tanzania Revenue Authority)로, 봉사활동 업무는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TRA는 정부 시설이라 그런지 컴퓨터

교육환경은 잘돼 있었다"는 단원들은 "다만 탄자니아의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업을 할 땐 모두가 답답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지 IT환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맥북을 비롯해 높은 수준의 IT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현지 시내 서점에 구비돼 있는 컴퓨터 관련 서적은 윈도 95 가이드북 정도"였다는 게 연경민씨의 설명이다.

국세청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컴퓨터 관련 부서 사람들의 경우 리눅스는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도 다룰 줄 아는 반면, 일반 직원들의 경우 컴퓨터를 켜는 법도 모르는 수준이었다.

IT 살람팀은 컴퓨터 활용 수준과 업무 부서를 고려해 '초급반·고급반'으로 나누어 각각 오피스 사용법, 인터넷 사용법, 기타 프로그램 사용 및 컴퓨터 언어 수업, 컴퓨터 수리 등을 교육했다. 고급반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리눅스도 교육했다. 현지인들의 반응도 좋았다.

"탄자니아 현지인들은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업시간에 많은 것을 얻어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교실을 떠나지 않고 바로 복습하거나 질문을 하는 교육생들도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수업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문화교육시간 따로 마련해 한국 알려

문화 교육 시간도 따로 마련해 현지 교육생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에서 준비해 간 호박엿, 누룽지 사탕과 녹차 등을 다과로 내놓고 붓글씨 연습, 한국영화 시청 등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한글 교육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글 자모음 아래 영어로 발음이 적혀 있는 종이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교육생이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ㅇ/ㅏ/ㅆ/ㅏ/ㄴ/ㅌ/ㅔ'를 조합하고 의기양양하게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싼테(Assante)는 스와힐리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최씨는 아직도 그때의 감동이 잊히지 않는 듯했다. 수업이 끝나고 종강하던 날의 일화도 빼놓을 수 없다. 강의 마지막 날 교육생들은 탄자니아의 전통의상인 탕가를 단원들 몰래 준비해 와 깜짝 선물로 전달했다. 직접 단원들의 허리에 둘러 주고 아프리카 노래를 불러 줬다.

최씨는 "자신들이 펼친 IT 봉사가 눈에 띌 만큼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다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생들 대

IT 인 살람

IT 인 살람팀은 현지 교육생들에게 붓글씨도 가르쳤다. 교육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흥미로워했다.

부분이 컴퓨터 교육에 관심 있게 따라 주었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들이 보여 무척이나 뿌듯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봉사를 하다 보면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태하고 불만 많았던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반성 등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IT 봉사를 다녀오기 전 이미 2009년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영상 촬영과 편집 작업 봉사활동을 펼친 적이 있는 연경민씨는 "외국인들에 관한 영상물을 만들며 외국인들도 나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해외봉사단 활동을 할 때는 현지인들을 '연민'으로 대할 게 아니라 현지인들의 문화와 가치, 능력을 존중하며 우리들의 재능과 지식을 조금 덜 아는 사람으로 대하며 '교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

글·박근희 기자

대한민국 IT봉사단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우리나라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WFK(World Friends Korea)의 하나인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해 2010년까지 3천5백여 명을 파견했다.

대한민국 IT 봉사단은 전 세계 개도국에서 IT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 정보기술과 전자정부 개발경험을 전파해 정부의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에는 2011년 '대한민국 IT 봉사단' 6백명을 선발해 20여 개국에 파견했다.

문의·한국정보화진흥원 www.nia.or.kr ☎02-2131-0537

"이제는 미스 해외봉사로 불러주세요!"

미스코리아 출신 김수현 KOICA 홍보관… 지구촌체험관 강의로 유명세

2006년 미스코리아 미(美) 출신으로 국제개발협력 홍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수현(26)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홍보관으로 지난해 1월 입사해 '미스 코이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방학을 맞아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이카 지구촌체험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김씨는 체험관을 찾은 학생들 사이에서 블로그 등에 회자될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다.

유미디 기자

2006년 미스코리아 미로 입상한 김수현씨는 한국국제협력단 홍보관으로 일하고 있다.

"왜 어렵게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KOICA 해외봉사활동에 꼭 참여해 보고 싶어요."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염곡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지구촌체험관에 30여 명의 중학생이 모였다. 방학을 맞아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30명 이상 단체의 신청을 받아 코이카 지구촌체험관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방학을 맞아 하루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만큼 인기가 좋다. 코이카는 강의를 통해 중점사업인 공적개발원조(ODA)와 해외봉사활동을 소개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최근 코이카 지구촌체험관에 청소년이 붐비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2006년 미스코리아 미(美) 출신으로 국제개발협력 홍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수현(26) 홍보관의 강의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 보며 봉사의 꿈 키워

지난해 1월 코이카에 입사해 '미스 코이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씨는 체험관을 찾은 학생들 사이에서 블로그 등에 회자될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학창시절 해외봉사활동 경험담 등을 들려주며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다는 평이다.

지구촌체험관 2층 강의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가 끝나자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 홍보관을 보고 나도 해외봉사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태어난 김씨는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자주 집으로 데려왔다.

고향을 등지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까지 오게 된 이들을 지극히 챙겼다고 한다. 김 홍보관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해외봉사

에 눈 뜨게 됐다.

"아버지 덕분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하루는 은행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는데, 글씨를 쓸 줄 몰라 첫 월급을 고향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로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죠."

중앙대 문화예술 석사과정인 김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내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미래숲' 봉사활동, 에베레스트 트레킹, 태안반도 환경봉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선바자회 등에 참여하며 나눔과 봉사 및 국제협력에 대한 꿈을 키웠다. 김씨는 봉사활동의 매력을 깨닫게 되자 더 빠져들게 됐다고 한다.

대학시절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스코리아에 당선돼 봉사활동이나 문학도의 길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깨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티븐스 美대사 광고에 출연시켜 화제

김 홍보관은 입사 후 첫번째 프로젝트로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과 협력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오색의 가로등이 신기한 현지인들이 전구를 몰래 빼내 집에 가지고 갈 정도였다.

그는 이를 계기로 지난 4월 코이카 창립 20주년 기념일에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씨는 "이 때문에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간간이 접수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인기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를 해외홍보단 광고모델로 섭외한 것도 유명한 일화다. 미국의 대사가 주재국 공공기관의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해외봉사단 광고 시안을 고민하던 중 과거 한국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만큼 광고모델로 적합한 사람은 없다 생각했다고 한다.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 출신으로 1975~1977년 충남 예산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스티븐스 대사와 미국 정부는 김씨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포스터엔 '당신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란 카피에 스티븐스 대사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

"세계를 만나고 나라에 봉사하며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해외봉사단에 지원했지만 제가 얻은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지혜를 몸소 느끼며 그렇게 영원히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 이것이 바로 해외봉사활동입니다. 여러분도 미래의 대한민국 대사입니다."

조선DB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코이카가 지원하는 NGO '다일공동체'의 밥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현 홍보관과 코이카 홍보대사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김씨에게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자,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씨엠립에서의 '밥퍼' 봉사활동이란 답이 돌아왔다.

"코이카 홍보대사인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과 캄보디아에서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급식소를 찾아온 아이들에게 한 끼 분량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고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투병 중인 부모와 형제들까지 6명이 나눠 먹어야 한대요. 준비한 밥 양은 한정돼 있는데, 제 몫이라도 더 담아주고 싶었어요."

봉사활동 이야기들 동화책으로 엮고 싶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국제이슈와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의가 급증한 것 같다"며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에게는 조그마한 꿈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의 해외봉사활동 경험을 이야기로 묶어 동화책을 펴내는 것이 그것이다. 봉사활동을 다니며 보고 느낀 것들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읽기 쉽게 엮어내고 싶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감동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해외원조의 필요성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G

글 · 유마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무한도전〉 조정특집 김지호 코치

“조정은 타인을 배려하는 인내 스포츠”

MBC 〈무한도전〉 ‘조정 특집’에서 좌충우돌 여섯 멤버들에게 조정을 가르치며 주목받은 김지호 코치. 조정 특집 첫회 방송 후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한동안 인터넷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왜 이렇게 미남이세요”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훈훈한 외모와 해맑은 미소, 친절한 설명으로 시청자의 이목을 끌고 있는 김지호 코치를 만나 봤다.

김지호 코치는 “몇 년 전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무한도전〉에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꿈이 이뤄졌다”며 “우리나라 청년들이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소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지난 8월 6일 MBC 〈무한도전〉이 5개월 동안 준비한 여름 프로젝트 ‘조정 특집’이 막을 내렸다. 이날 방송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열린 ‘STX컵 코리아 오픈 레가타’에 출전한 무한도전팀의 모습을 방영했다. 무한도전팀은 세계 조정 명문대 학생들과 겨뤄 꼴찌인 8위를 기록했지만 2천미터 완주라는 감동의 레이스를 펼쳐 시청자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번 특집 방송에는 감동적인 경기 장면과 함께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다. 5개월간 무한도전팀을 지도했던 김지호 코치다. 얼굴도 미남인 데다 마음까지 훈훈한 그와의 생생 인터뷰를 공개한다.

방송에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늘 미소 짓는 모습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원래 성격은 어떤 편이세요?

“사실 성격이 없는 편은 아니었는데 ‘장애인 조정팀’을 맡게 된 후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지적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할 때는 윽박지르거나 화를 낸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 주면서 제가 그들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후부터는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게 됐죠.”

‘장애인 조정대표팀’ 코치는 어떻게 맡게 된 건가요?

“대학교 졸업 후 가슴에 품은 인생의 비전 중 하나가 아프리카 봉사를 다녀오자는 거였어요. 2008년 아프리카 케냐의 오지 마을로 떠났는데 그곳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종 질병과 기능장애, 정신지체장애 등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체육 활동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줄넘기, 체조, 유도 등을 가르치는 최초의 체육 교사로 활동했어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장애인이나 사회 약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제 마음을 열게 했어요. 덕분에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 ‘장애인 조정대표팀’ 코치 제의를 받았을 때도 망설임 없

이 결정할 수 있었죠."

10대부터 40대까지, 시각장애와 지체·지적장애를 가진 분들로 이루어진 '장애인 조정대표팀'의 화합을 유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 코치를 시작했을 때는 간단히 거동을 도와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조정은 제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니까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장애라는 특별한 유형과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나 진심으로 대하며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 결국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더군요. 시합이 끝나고 처음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장애인 선수들이 조정을 하면서 밝아지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은 지금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정병화

지난 7월 30일 열린 'STX컵 코리아 오픈 레가타'에 출전한 무한도전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천미터 완주라는 감동의 레이스를 펼쳤다. 사진은 특별상을 수상한 무한도전팀과 김지호 코치(왼쪽 첫번째).

물 위에서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조정은 재밌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힘들어요. 조정은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온몸을 써야 해요, 시합을 하다 보면 물 위에 노를 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TV에서 볼 때와는 정말 다르죠.

유럽에서는 조정을 했다고 하면 무척 인정해 주는 편인데 그 이유가 조정을 한다는 자체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기고 많은 것들을 초월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 주면 안 된다'는 조정만의 에티켓이 있기에 힘들어도 웃으면서 즐기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죠. 그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이번 조정대회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울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비인기 종목이 발전하려면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 같은 스타플레이어가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이 관심받고 사랑을 받으니 기분이 참 좋죠. 꼭 '조정 선수가 되어야겠다'가 아니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자연과의 조화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조정은 경기를 준비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힘든 거지 레저로 즐기려면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번 〈무한도전〉 출연으로 유명인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제 꿈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현재 국제조정연맹 심판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봉사 갔을 때 축구공 하나가 너무 비싸서 욕심조차 낼 수 없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저소득 국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있던 곳은 너무 열악해서인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아주 어려운 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도시에 있는 이들이었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빈곤문제와 사회약자 문제에 따뜻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재석씨가 노래한 '말하는 대로'의 가사처럼 꿈은 꾸는 사람만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꿈을 품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제 비전과 이상을 향해 노력하고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G

글 · 박미영 (고려대 조형학부 4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은 참신한 시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이슈, 정책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이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문화놀이터(culturenori.tistory.com)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태양에너지 개발 꿈꾸는 화공학도 정현철씨

“韓·美 인턴생활 통해 ‘마이웨이’ 찾았죠”

요즘 대학생들은 너도나도 방학 혹은 휴학을 활용해 인턴을 한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자랑하는 G20 세대들에게 인턴은 스펙을 쌓기 위한 보편적인 과정이다. 인턴이란 무엇이며 인턴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포스텍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후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며 두 차례의 인턴을 경험한 정현철(26)씨에게 그의 인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포스텍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정현철씨는 태양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다.

정현철씨의 이력을 살펴보니 공부에만 충실했던 우등생임을 알 수 있었다.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인 그는 독학으로 화학을 공부해 과학고 학생들의 독무대인 포스텍 화학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후 포스텍 화학공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여기서도 ‘학교 공부가 최고의 미덕’이라 여기며 줄곧 학교 공부에만 매달렸다. 대학교 평균 평점은 4.3점 만점에 3.98점. “당장 눈앞에 주어진 것에만 너무 매달렸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작 공부를 하면서 더 큰 그림은 못 그린 거죠. 의욕도 사라져 가고 이 길이 나에게 맞는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공부에만 매달리던 정현철씨는 학부 3학년을 마친 후 인턴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동안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생각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학교생활에서 일종의 결핍을 느꼈어요. 뭔가 색다른 경험을 찾고 있던 중 인턴에 지원했죠. 화학공학은 실제 산업에 직결된 학문인데 사실 책에서만 배우니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더라고요.”

익산 화학공장 연수후 미국 공장에 3주 파견

정현철씨가 인턴으로 지원한 곳은 동양제철화학(현 OCI)이었다.

“우선 익산의 화학공장에서 한 달 근무하면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미국 와이오밍 주의 록키산맥 등지에 있는 소다회 정제공장에서 3주간 일했어요. 안전모를 쓰고 공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특히 미국 공장에는 동료 인턴사원과 저 둘만 파견되어, 현지인들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활했어요. 공장 업무를 배우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일상생활까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인턴생활을 통해 “도전의 즐거움을 배웠다”고 말했다. 인턴생활을 통해 실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화공(化工)의 역할 등 많은 것들에 대해 알게 됐죠. 하지만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은, 학교 바깥에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인턴생활을 통해 대학 바깥의 넓은 세상을 배운 뒤로 정현철씨의 삶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졸업을 1년 앞두고 휴학을 했다.

"원래는 대부분의 동기들처럼 저도 학부를 졸업한 뒤 포스텍 대학원 화공과에 진학해서 박사과정을 밟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인턴을 통해 대학 밖에서 화학공학을 체험하고 나니, 그동안 제 진로에 대해 너무 좁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계가 아닌 산업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외국에서 얼마간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세부 전공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학원에 가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찾으며 적응력도 더 키워 보고 싶어요."

해병대 입대 통해 새로운 환경의 적응력 키워

먼저 군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해병대를 선택했다.

"기왕 갈 거 정말 제대로 해 보자는 생각에 해병대를 택했어요. 평소 안정적으로만 살던 터라 주위에서는 걱정이 심했죠."

정현철씨는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다. 그가 복무하는 동안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같은 큰 사건들이 있었다. 그는 군 복무 기간 중 해병대사령관 표창, 해군정보통신학교장 표창, 국군의 날 부대 모범해병 표창을 받았다.

제대한 후 그는 복학 전까지 현대오일뱅크에서 두번째 인턴생활을 했다. "첫번째 인턴생활은 공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무실에서 일해 보고 싶었어요. 정유 회사를 선택한 것은 화학공학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두번째 인턴에서 그는 에너지정책팀에서 일했다.

"에너지정책팀에 배정받은 건 행운이었어요. 에너지정책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해 배우면서 에너지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정현철씨(오른쪽)는 동양제철화학(현 OCI)에서 인턴생활을 하는 동안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소다회 정제공장에서 3주간 일했다.

그는 "우선 석유가 의외로 아직까지 꽤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 놀랐다. 단순히 매장량만을 고려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의 석유 고갈에 대비할 시간이 아직 충분한 것처럼 보였다"면서,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다"고 말했다.

태양에너지 공부하러 미국 대학원 유학 준비

"세계 석유가 대부분 중동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보니, 이 지역의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석유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던 거예요. 인턴 기간 중에 이란에서 원유를 싣고 오던 유조선이 이를 하역하지 않고 목적지 바로 앞에서 며칠간 멈추어 섰던 일이 있었어요. 당시 미국이 이란 내에서 자금이 테러단체로 흘러 들어갈 것을 염려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일부 제한했어요. 이러한 조치가 석유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어떤 에너지 자원이든 단순히 그 매장량만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태양에너지와 같이 편중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정현철씨는 현재 미국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태양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은 후 해외의 선진화된 에너지 산업 현장에서 얼마간 경험을 쌓고,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경제 및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태양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에요. 태양에너지가 싼 가격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마지막으로 G20세대에게 전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주위에서 인턴을 단순히 스펙 쌓는 용도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 인턴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 임직원이 인턴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저 역시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아 하나라도 더 알려고 노력했어요. 후배들도 인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가 인턴을 통해 얻었던 도전정신과 넓은 시야, 폭넓은 경험을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G

글 · 이재근 (포스텍 화학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1942년 병원 배경의 공포영화 〈기담〉

일제 말 시대상황과 귀신의 절묘한 '공존'

2007년 여름 개봉했던 영화 〈기담〉(감독 정식, 정범식)은 삶과 죽음이 마주보고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기이한 이야기를 매우 차분하고 세련되게 그려낸 매력적인 공포영화다. 시대적 배경을 1942년으로 하여 현대적인 병원과는 또 다른 고풍스러움과 이국적인 분위기가 영화의 스산한 느낌을 더욱 잘 살리고 있다.

이야기는 1979년 의대 노교수인 정남이 젊은 시절 수련의를 했던 안생병원이 헐린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시작된다. 일제 식민지의 폭압적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던 1942년에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던 안생병원 수련의 시절 4일간의 회고가 영화의 주요한 내용이다. 배경이 된 안생병원은 실존했던 병원은 아니지만 당시 최고의 서양식 병원이라고 상정한 것을 볼 때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교 부속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이미지를 혼합하여 가상의 병원 공간을 만든 것 같다.

경성대·세브란스 병원 이미지 혼합

현재 경성제국대학교 병원 건물은 헐리지 않고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 병원 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서울역 앞에 1904년경 지어졌던 세브란스 병원 건물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헐렸다. 영화 속 안생병원의 여의사 인영(김보경 분)이 수련의 정남(진구 분) 등 의대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14·15기 후배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것을 볼 때 경성제국대학교 부속병원이 좀 더 직접적인 모델인 듯하다.

조선DB

일제시대엔 흔하지 않았을 법한 교통사고·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 〈기담〉. 출연자들의 표정이 음산하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42년경이면 1926년에 처음 만들어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졸업학년의 기수가 14·15기쯤 된다. 세브란스는 1908년부터 이미 의사들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로 1942년 세브란스의 기수를 따지자면 30기가 훨씬 넘는다.

우리나라 서양식 병원은 갑신정변 때 부상한 민영익을 미국인 의사 알렌이 치료한 것이 인연이 되어 1885년 왕립병원 광혜원(제중원으로 이름 바꿈)이 설립된 것이 처음이다. 이 최초 서양식 병원의 건물은 한옥이었다. 이후 캐나다 출신 선교사이자 의사인 에비슨에 의해 1904년 지어진 서양식 건물 세브란스 병원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현존하는 서양식 병원 건물은 1908년 대한제국기에 지어진 국립병원인 대한의원 건물이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원으로 바뀌었고, 1911년에는 부속 의학강습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26년에는 경성제국 대학에 포함되면서 대학병원으로 되었다. 식민지 시절에도 서양식 건축물의 병원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일제 말 한국인 의사들은 특별한 존재들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와 함께 근대 전문직으로서 매우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의사는 특정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국가고시를 통과한 이들에게만 '면허'가 부여되었다. 1913년 말 공포된 '의사규칙'에 따르면 당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총독부가 지정한 의학전문학교(또는 제국대학 예과와 의학부)를 졸업해야 했다. 지정받지 못한 의학교 출신이거나 독학자인 경우 총독부가 주관하는 의사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일제 말인 1942년 말 통계를 보면, 당시 한반도에는 3천5백57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국사람은 65퍼센트인 2천3백24명

의대 노교수의 회상으로 시작되는 영화 〈기담〉은 감성을 자극하는 세련되고 고풍스러운 매력을 지닌 스릴러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었다. 일본인 의사들은 대부분 관공서와 식민지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한국인 의사들은 20퍼센트 정도만 대학병원 등에 들어갈 뿐 대부분이 개업의로 활동했다.

영화에 나오는 안생병원이 식민지 기관이었다면 이 병원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의사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존재들인 것이다. 특히 여의사 인영의 존재는 더욱 그러하다. 식민지 시대 말기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한국인 여의사는 18명에 불과했다. 그들은 일본여자의학전문학교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중국·미국 등 해외 의학교 출신이거나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의 청강생으로 졸업하는 정도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의사는 이광수의 아내로도 유명한 허영숙을 비롯해 현덕신, 이덕요, 류영준 등이 있었다고 한다. 영화 속 인영의 캐릭터도 도쿄에서 유학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녀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장면은 시대적 배경으로는 다소 무리인 감이 없지 않다. 한국인으로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교수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의사의 진료 모습은 오늘날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체온점검과 청진 및 문진이 기초적 검진이었고, 역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수련의를 동행해 입원환자를 회진하기도 했다. 영화에서도 의사인 수인(이동규 분)이 정남 등 젊은 수련의를 데리고 회진하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턴제도는 191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졸업한 후 임상실습을 하는 과정을 1년 정도 두었는데 인턴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과를 순회하면서 실습 경험을 쌓았다. 영화에서는 동원(김태우 분)이 신경외과의 전문의라고 설정되어 있지만 실상 이 무렵에는 특정한 전문의가 있었다기보다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의료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살·교통사고·다중인격 세 가지 에피소드 등장

영화의 세 가지 에피소드에서는 각각 자살·교통사고·다중인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제시대 병원의 주요한 환자는 장티푸스·폐렴 같은 유행성질환과, 골절·뇌출혈·심장병·결핵·뇌막염·위궤양 등의 급만성 만성질환과, 출산·성병·정신병 환자 등이 많았다. 일제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들은 실제로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고 한국 사람들은 소외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영화에서도 의사는 한국인들인데 비해 환자가 일본인인 것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기담〉은 익숙하지만 전혀 일상적일 수 없는, 병원이라는 공간에 역사성이라는 스타일을 더하고 비밀스러운 사랑의 애틋함을 보태 공포의 단계를 한 단계 더 고급화시킨 매우 매혹적인 영화이다. G

글·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사진작가 김재경

판교 단독주택단지 11블록에 있는 '윤교수댁'. 주민들끼리 합의한 이 구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층 높이로 짓고 목재와 아연판으로 앞면을 마감했다.

집! 이기심을 버리자 이웃의 정 '새록새록'

김승회 서울대 교수가 기획… 옆집과 집 바깥을 공유하는 '이웃과 함께 하는 건축'

이 시대, 한국의 집은 이기적이다. 철문으로 감싼 채 소통을 단절한 아파트, 높은 담벼락으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고급주택…. 모두들 내 집 울타리 안에만 천착할 뿐 이웃집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요즘 김승회(48·사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섬처럼 따로 노는 한국의 주택 문화에 반기를 드는 의미 있는 건축 실험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1995년 '일산주택'을 시작으로 다세대 주택의 대안을 모색한 '방배동 돌체하우스', 가볍고 에너지가 적게 드는 '과천주택', 재벌가 고급주택 등을 통해 '집의 전형(典型)'을 모색해 온 건축가다.

이번 실험 무대는 공동 주거의 대안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한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지의 11블록 지역이다. 총 80여채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이 지역의 코디네이터 건축가를 맡아 외형적으로 조화로운 동네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부 집은 직접 설계했다. 그의 '판교 실험'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 '윤교수댁'을 김 교수와 함께 찾았다.

80여 채 단독택지 가이드라인 제시한 '판교실험'

11블록 입구 코너에 있는 2층 집 '윤교수댁'의 첫인상은 따뜻함이다. 규모(대지 2백71평방미터, 연면적 2백87평방미터)에 비해 건물 외관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같은 소재로 마감해 덩어리 느낌을 주는 대신 외벽을 분절해 목재·아연판·노출콘크리트를 적절히 안배했기 때문이다. 1층 거실은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외부와 연결되고 2층은 작은 창이 나 있어 한 건물이지만 1, 2층의 느낌이 사뭇 다르다.

김승회 교수는 "이 지역 건축주들과 만나 만든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표본 같은 집"이라 소개했다. 2008년 판교 단독주택지

김미리 기자

박공지붕 형태를 그대로 살려둔 2층 천장

김미리 기자

예술품을 좋아하는 건축주의 취향을 반영, 작품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 내부.

에 필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자신들이 살 마을을 통일성 있게 가꿀 목적으로 블록(총 14블록)별로 담당 건축가를 정했다. 이 중 11블록 주민들이 선택한 건축가가 김 교수였다.

그를 적극 추천한 사람이 바로 윤교수댁의 건축주 윤구영(51·홍익대 교수)·이금순(48·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부부였다. 부부는 "건축에 관심이 많은 두 딸과 함께 건축 전시를 돌아다니다 김 교수의 작품을 접했고, 블록 담당 건축가 얘기가 나왔을 때 자연스레 그를 떠올렸다"고 했다.

주민들의 제안에 김 교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자기 집 내부만 관심 있는 우리의 건축 환경에서 이웃들이 의기투합해 자신의 마을 풍경을 통일화시켜 달라고 제안해 온 것이었다. '집=집+집'(여러 집이 모여 집합적인 집의 풍경을 이룬다는 뜻)이라는 내 신념하고도 맞아 기꺼이 임하게 됐다."

건축주들과 만든 가이드라인은 2층 높이인 6미터 정도로 고도를 맞추고 외벽 소재는 콘크리트·목재·아연을 주로 사용해 일관성을 주자는 것 등이었다. 자기 집만 튀려고 더 높이, 더 화려하게 하는 대신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절제하는 편을 선택했다.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주택이 이 지침을 따랐다.

김 교수는 자신이 직접 설계를 맡은 집에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이웃과의 공간 속에서 예의를 지키는 집', '생활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자아실현의 공간으로서의 집'이었다. 윤교수댁은 이 두 지점이 맞닿은 결과물이다.

튀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건축 선택

2층으로 이웃집과 눈높이를 맞추고, 집 옆면과 뒷면에는 창을 거의 내지 않아 이웃의 사생활 침해를 막았다. 그림을 좋아하는 부인을 위해 실내에 갤러리처럼 다양한 공간과 형태의 흰 벽을 만들고, 열린 공간을 즐기고 싶어하는 남편을 위해 1층 거실에 통유리창이 들어갔다. 박공지붕 형태를 그대로 남긴 2층 천장은 가족들에게 '진짜 집'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장치다.

김 교수는 "아파트가 기성복이라면 주택은 주인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맞춤복"이라며 "결국 집은 주인을 닮게 된다"고 했다.

건축주는 '이웃집과 함께 하는 건축'에 동참한 자신들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꼈다. "옆집과 집 바깥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레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다"는 것이었다. 이웃과 함께 나대지에 꽃도 심고 동네의 녹화를 고민하게 됐다. 서로 집으로 초대하는 '오픈하우스'도 하면서 아파트 살 때는 잊고 살았던 이웃사촌을 만들고 있다. 집들이 '배려하는 건축'을 통해 이기심을 버리자 그 틈으로 사라졌던 이웃의 정이 파고들었다. G 글·김미리 (조선일보 대중문화부 기자)

그림1 샘 프란시스, 〈무제 (Untitled)〉, 1986, 종이에 아크릴물감.

미술가가 그린 한 획, 값어치는 얼마?

〈한 획〉 展, 학고재갤러리서 8월 21일까지

피카소의 그림처럼 유명한 미술품은 보통 얼마에 팔릴까? 어떤 작품이 몇백억원에 낙찰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도 매번 눈이 휘둥그레진다. 붓질 하나하나가 다 돈인가보다. 한 획 긋는 일이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니까, 미술가야말로 가장 쉽게 돈 버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어떤 작품은 제작비가 많이 든다. 가령 데미언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해서〉라는 작품은 8천6백1개의 다이아몬드를 해골에 붙인 작품인데, 제작비가 무려 2백27억원이나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작품이 무려 9백40억원에 판매된 이유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 어렵다. 시간당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라고 말하면 믿어 줄까?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몸을 써야 하는 일도 있고, 가만히 앉아 머리로 생각을 짜내야 하는 일도 있는데, 두 종류의 일 모두 노력과 시간을 바쳐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그럼, 미술가의 작업은 어떻게 값어치가 매겨질까?

미술품 가격은 노동 아닌 명성이 결정

한 예로 샘 프란시스가 그린 작품을 보자(그림 1). 푸른 물감을 큰 붓에 듬뿍 묻혀 쓱쓱 휘두르고, 그 옆으로 노란색 물감으로 짧게 휙휙 그었다. 일부러 물감을 흩뿌린 흔적도 눈에 띈다. 그림을 끝내

그림2 윤향란, 〈산책〉, 2009, 한지에 파스텔.

그림3 정현, 〈무제〉, 2008, 철판에 녹.

는 데 시간이 얼마나 들었을까? 글쎄, 뛰어난 작품임에 틀림없지만, 누가 보아도 정성을 많이 기울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꿈틀꿈틀하면서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은 힘찬 움직임이 느껴져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좋아하나보다.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호탕한 자유로움이 그림에서 풍겨 나오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화가에게 "제발 좀 성의껏 꼼꼼하게 색칠해 주세요" 하고 말한다면 어이없는 부탁이 되고 만다.

이번에는 윤향란의 작품 〈산책〉(그림 2)을 보자. 초록색 선들이 종이 위를 가로로, 세로로, 또 어슷하게 오갔을 뿐, 그게 전부이다. 어느 날 화가는 날씨가 좋아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나보다. 그래서 준비도 않고 바로 길을 나선다.

어디를 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이 이곳저곳을 걸어 다니다가 작업실로 돌아온 화가는 눈을 감고 산책길을 떠올려 본다. 긴장감 없이 느슨한 마음, 둥실둥실 가벼운 발걸음, 바람에 실린 싱그러운 풀잎 냄새…. 그래서 초록색을 집어 들고 이런 선을 그었을 것이다. 만일 빽빽하게 색칠했다면 그날의 기분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

조각가 정현의 작품(그림 3)은 매끈한 철판 위에 뾰족한 칼로 긁어 효과를 내었다. 도구를 꽉 움켜 쥔 손아귀의 강한 힘이 느껴지는 가운데, 쇠와 쇠끼리 부딪치면서 소름 돋는 소리가 비명처럼 새어 나온다.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 살을 베인 것 같은 쓰라림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듯하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자. 도대체 미술가의 작업은 어떻게 값어치가 매겨질까. 1877년에 영국에서 비평가 존 러스킨과 제임스 휘슬러라는 화가 사이에 재판이 벌어졌다. 러스킨은 인간의 노동과 정성이 깃들어야 좋은 예술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니 몇 번의 붓질로 단번에 완성한 휘슬러의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피카소의 한마디 "이 한 줄 긋는 데 40년 걸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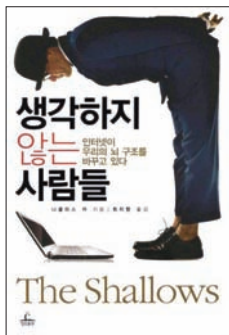
러스킨은 "이 잘난 체하는 양반이 물감을 통째로 내던져 그린 후 뻔뻔스럽게 돈을 그렇게 비싸게 받을 줄은 몰랐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신문에 실었다. 불쾌한 휘슬러는 러스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결과는 휘슬러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미술가의 획에는 그것만의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판결이 난 셈이다. 데미언 허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예술은 명성이다. 유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예술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생존본능이다."

가격을 올리는 것은 미술가의 노동이 아니라 명성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유명해지기까지 미술가들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한 줄을 긋는 데 40년이 걸렸소"라는 피카소의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G

글 · 이주은 (성신여대 미술교육학과 교수)
문의 · 학고재갤러리 www.hakgojae.com ☎02-720-1524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무뇌아'가 싫다면 책 좀 읽으세요!

니콜라스 카 지음
청림출판 펴냄 · 1만5천원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다. 나이가 들어 그런지 부쩍 집중력이 떨어지고, 책을 다 읽고 나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50대라면 이렇듯 나이 탓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듯 싶다. 요즘 어린아이들을 지켜보면 분명히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는 듯하다.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두루 살펴보는 흥미로운 책이다.

지은이는 '뇌 가소성'이란 말을 상당히 비중 있게 설명한다. 이것은 인간의 뇌신경이 한번 만들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뇌 신경회로 가운데 반복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기능이 강화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축소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뇌 가소성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뇌의 용불용설(用不用說)이라 할 만하다. 이 책에는 유력한 뇌 과학자들의 다양한 실험과 논문이 인용되었는데, 뇌 가소성이 상당히 설득력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지은이가 뇌 가소성을 들먹이며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에 해당하는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이 계속 더 자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정보를 얻는 대가로 집중과 몰입 그리고 관심의 분화와 생각의 분산이라는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기분 좋은 사람도 있겠다.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가 나이 탓이 아니라 인터넷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뇌 회로에 변화가 일어난 결과라 하니 말이다. 굳이 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터넷 사용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강요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검색을 통해 대충 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른바 '악플' 같은 것이 양산되는 것도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글쓰기 영역에서 일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인터넷 하면, 다들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 같다는 인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을 하려면 무엇을 되살려야 가능할까? 예상할 수 있는 얘기지만, 몰입하여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관련 학자들의 글을 요령 있게 정리하면서, 지은이는 문자발명의 의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구술문화는 한 공동체의 지혜와 역사를 전승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지적으로는 피상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문자발명 이후 혁명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맥루한은 아예 "읽고 쓰는 능력이 서구문화의 성과를 가능케 했다"고까지 말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적 사유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문자발명에 있고, 그것의 총화가 책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지식사냥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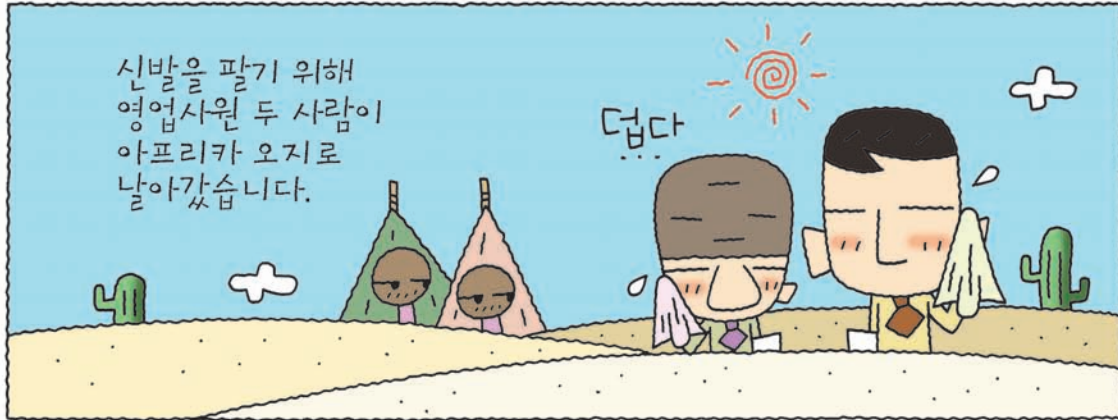
인터넷으로 정보의 바다를 서핑하는 현대인들을 보며 지은이는 "개인적으로 지식을 함양하는 존재에서 전자 데이터라는 숲의 사냥꾼이나 수집가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한다. 뇌 가소성 이론을 따르면,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 있을 텐데, 지은이는 이를 "긴 이야기를 읽거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반성하거나 내부 또는 외부의 현상에 대해 숙고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 말했다.

이쯤 되면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했으니, 이런 능력은 필요 없을까?'라고.

인터넷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식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애를 쓰고 집중하여 내것으로 삼은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 역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은 법이다. 아무리 인터넷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책을 꾸준히 읽어나가자. 그러면 중요한 능력이 퇴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책을 읽으면 입 안에 가시 돋치는 이들이 새겨들을 말이다. G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같은 맨발, 다른 생각

글과 그림 · 최영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 둘 중 어느 한쪽이 반드시
우위를 점하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감정이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 마이클 로지에 <끌어당김의 법칙> 중에서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척추·목뼈를 편안하게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고통받는 신체기관들도 있다. 바로 척추와 목뼈가 대표적이다. 앞쪽과 아래쪽으로 집중되는 일상생활에서 고개는 늘 비스듬히 숙이고, 등골은 구부정해 있기 십상. 그렇게 되면 머리를 누르는 중력이 더 강력하게 뼈의 관절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관절에 가해지는 중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일일이 자세를 교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태극권은 짓눌린 몸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수련이므로, 등골(척추)과 목뼈를 편안하게 해 주는 동작 또한 담고 있다. G

간단한 마사지로 뻐근한 목을 시원하게

척추에서 연결된 어깨 위쪽, 목 부분의 통증을 예방하고 식도 및 호흡 기능을 도와주는 간단한 마사지 기법을 통해 목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뇌를 튼튼히 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따라 해 보자. 근무하다, TV를 시청하다 틈틈이 되풀이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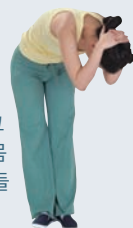
1 양손을 마주 비벼 열이 나게 한 다음, 먼저 오른손으로 뒷목을 36회 문지르고 다시 양손을 마주 비빈 뒤 왼손으로 뒷목을 36회 문지른다.

2 양손 장지를 옥침혈의 아래위에 대고 검지를 장지 위에 올렸다가 튕겨내리며 머리를 36회 때린다. 이때 울림의 소리가 있을 만큼 강하게 해야 한다.

대한태극권협회 명예회장인 이찬 선생이 누구나 쉽게 태극권을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CD가 함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다. 동아E&D 발행 · 1만4천5백원

중추를 튼튼하게 하는 놀라운 스트레칭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뒤로 쫙 펴는 동작을 기본으로 하는 조금 복잡하지만, 효과가 좋은 동작이다. 좌우 한 세트를 2~3회만 되풀이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양발을 모아 선 자세에서 양손을 깍지 껴 머리 뒤 툭 튀어나온 옥침혈 부위에 댄다.

2 서서히 양 팔꿈치를 안쪽으로 오므리며 허리와 등을 숙이고 난 뒤,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몸통을 45도 돌린다. 이때 숨을 들이쉰다.

3 숨을 내쉬며 양 팔꿈치를 벌리면서 등을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본다.

4 그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모든 것은 그대로인 채 옆구리를 오른쪽으로 젖혔다가 세운다.

5 다시 팔꿈치를 오므리면서 상체를 숙여 2와 같이 내리고 정면으로 향한 뒤 서서히 몸을 세워 뒤로 젖힌다. 몸을 바로 세우고 이와 같은 동작을 오른쪽으로 되풀이 한다.

‘게’ 다이어트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낭비 없는 음식문화가 저탄소 녹색부국을 만듭니다.

매직쇼 **최현우 매직콘서트 〈셜록홈즈〉**

마술과 추리력이 결합한 신개념 마술쇼가 열린다. 최현우 매직콘서트 〈셜록홈즈〉는 미궁에 빠진 사건을 두고 관객이 범인, 혹은 탐정이 돼 마술사와 팽팽한 심리게임을 하며 사건을 추리해 나간다. 관람객이 공연의 일체가 돼 벌어지는 사건들의 마술을 추리하게 된다. 일루전 마술의 해법을 공개해 관객이 직접 일루전 매직의 마술사가 되어 미녀 조수를 자르는 기괴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일시 8월 30일~9월 18일 **장소**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 **관람료**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1566-5490

공연 **뮤직 오브 더 나잇 2011**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와 〈오페라의 유령〉의 명곡들과 주역들이 한무대에서 만난다. 거장 프랭크 와일드 혼과 앤드루 로이드 웨버 대표곡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시작해 새 인생'을 비롯해 〈오페라의 유령〉의 '오페라의 유령', '그 밤의 노래' 등의 하이라이트 무대를 꾸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브래드 리틀, 홍광호, 김선영, 김소현 등 작품의 주역들이 그대로 출연한다.

일시 9월 2~4일 **장소** 잠실 샤롯데씨어터 **관람료** R석 8만8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1577-3363

전시 **어둠 속의 대화**

6백만명이 체험한 세계적인 체험전시 〈어둠 속의 대화〉가 찾아온다. 단순히 시각장애인들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닌, 시각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 인간의 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보이는 삶의 풍요로움을 감사하게 하는 새로운 감각 체험전이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전문 가이드의 인솔하에 이루어진다.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죽어 있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일시 10월 31일까지 **장소** 신촌 버티고(VERTIGO) **관람료**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원 **문의** 02-313-9977

대구세계육상과 함께 보디페인팅 색의 향연

〈2011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이 8월 27일 경연, 28일 수상자 페스티벌의 일정으로 2일간의 화려한 색의 향연을 펼친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열려,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에게 대구의 섬유, 패션, 미용 등 뷰티산업 전반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은 '파라다이스(Paradise)'를 주제로 10여 개국 70여 개 팀의 세계 정상급 보디페인팅 아티스트들과 모델들이 참여한다.

각 부문에 걸쳐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보디페인팅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의상과 무대 효과가 어우러져 특별한 종합예술의 작품 세계가 펼쳐진다.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보디페인팅 부문과 판타지메이크업 부문의 경연도 기다린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무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헤나 등 체험 프로그램과 록밴드 공연, 마술쇼, 석고마임 등 다양한 무대행사로 관람객들에게 또 하나의 재미를 선사한다. 코오롱야외음악당 일원에서는 3~5분 내외의 타상연화 및 장치폭죽으로 불꽃놀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G

글 · 김선영 인턴기자

일시 8월 27~28일 **장소**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 **문의** 053-760-1855

DIBF조직위원회 사무국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열리는 축제 중 하나다.

연합국제보도사진전에는 대상작 '콜레라 희생자'(위 사진)와 금상작 '페인트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 노동자'(아래 사진) 이외에 사실적 모습을 보여주는 보도사진들을 볼 수 있다.

빈곤퇴치 등 유엔 새천년목표 달성

포토저널리즘으로 지원

〈연합국제보도사진전〉

연합뉴스와 유엔이 함께 국제보도사진공모전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를 위한 연합국제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연합뉴스가 주최하고 유엔과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완전 보급,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등 유엔의 8개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포토저널리즘을 통해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했다.

라이언 심사위원장은 "수상작들의 작품성이 높아 크게 만족한다"면서 "이번 사진전이 유엔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전은 9월 30일까지 구 서울역사 전시공간에서 무료 전시되며 8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도 열린다. 서울 전시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경주 등 지방 7개 도시에서 순회 개최된다. G

일시 9월 30일까지 **장소** 구 서울역사 **문의** 02-398-3661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대학로 소리아트홀3관	8월 28일까지	02-766-9880
뮤직 인 마이 하트	대구 문화예술전용극장CT	8월 27일~ 9월 30일	053-762-0000
사운드 오브 뮤직	목동 브로드 홀 (목동 방송회관)	9월 4일까지	02-2647-8175
폴링포이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9월 11일까지	02-399-1114~6
연극			
마크로풀로스의 비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9월 30일~ 10월 1일	02-2280-4124
신국의 땅, 신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 내 문화센터공연장	8월 31일까지	054-740-3800
파라디소 이야기	파라디소극장	10월 30일까지	02-764-2897
잇츠유	대학로 클막씨어터	9월 11일까지	02-741-0720
콘서트			
올레스퀘어 톡 콘서트 Jazz and the city	올레스퀘어	9월 30일까지	1577-5599
다이너마이트 투어 (대구)	클럽헤비	8월 24일	1588-7890
린킨파크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9월 8일	1544-1555
클래식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8월 28일	1544-8117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경기도 문화의 전당 행복한대극장	9월 8일	031-230-3440~2
오페라 무용			
수궁가 Mr.Rabbit and the Dragon King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9월 8~11일	02-2280-4124

8월 둘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7월 31일~8월 6일

곡명	가수
1 UGLY	2NE1
2 Good-bye Baby	miss A
3 Grand Final(Feat.정인 & MC 날유)	리쌍
4 Hate You	2NE1
5 찹쌀떡	쎈치한 하하
6 고래사냥 (송창식)	자우림
7 Mr. Simple	슈퍼주니어
8 Roly-Poly	티아라
9 남자니까 웃는거야	창민 & 이현(HOMME)
10 너의 웃음 고마워	포맨

'예술' 대신 '예능'으로 몰리는 이유

평론가들의 불만은 이렇다. "세상이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고 비평을 외면한다. 천박하다. 온 세상이 강호동, 유재석이 찧고 까부는 것만 봐서야 되겠느냐. 무용, 연극, 클래식, 문학…. 신문에 전문 비평가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것도 자주."

일리가 있다. 그래서 본격 '리뷰'를 부탁한다. 우리 기자가 평론가와 통화한 내용은 이렇다.

"○○○ 선생님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멀었지요. 너무 경박하고…. 아직 멀었는데, 벌써 거장인 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

엄밀히 말하면 평론가들이 원한 것은 쓴 건 쓰다고 단 것은 달다고 쓰는 본격 '리뷰'가 아니라 주례사 비평을 쓸 지면이었다. '주례사 비평'이란 좋으면 좋다고, 나빠도 좋다고 쓰는 평론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의 지면을 빌려 예술가들에게 아부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평론가가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비평 대상자의 이름이 크면 클수록 평론가들의 배짱은 쪼그라든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비평이 설 자리를 잃은 게 첫째 이유다. 비평이 읽을 맛이 없어서 독자들이 평론지를 찾지 않는지, 평론지가 사라져 볼 만한 평론가가 사라졌는지, 무엇이 우선인지는 명확지 않다. 그러나 평론지가 독자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데 실패한 것만은 확실하다.

마당을 잃은 평론가들은 '홍보지'로 자리를 옮겼다. 요즘 우리 문화계에는 본격 평론지는 사라지고 홍보잡지를 겸한 묘한 형태의 문화행사 소개지가 절대다수다.

여기에 '생계' 문제가 개입된다. '유력 필자', '저명 음악가', '유명 화가', '유명 출판사'는 문화잡지를, 문화비평지를, 문화행사를, 관련 포럼을 '지배'한다. 먹고 살기 힘든 지식인 평론가들은 그들이 주인인 '밥통'에 숟가락을 들이밀어야 한다. 그 지배자들은 비평을 가장한 아첨을 원할 뿐, 비평 자체를 혐오한다. '연극계 ○○○ 눈에 밉보이면 밥 먹기 힘들다', '클래식계에서 ○○○에게 밉보이면 더 이상 글쓰기 힘들 것' 이런 소문이 파다하니 평론가들은 '매운' 리뷰를 쓰지 못한다. 평가자(평론가)가 피평가자(실연자)보다 힘이 약하니 벌어지는 일이다. 기자들에게 '나는 쓰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대신 써달라' 부탁하는 평론가도 있다.

비평이 설 자리 잃으니 관객들은 예술가 외면

외국 신문을 자주 읽는 이들은 왜 우리 비평이 신랄하지 못한가 타박한다. "이 영화를 보면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라"(로베르토 베니니의 피노키오), "이 영화에서 가장 눈물 나는 대목은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자기 능력으로 시나리오를 쓰겠다 우긴 것"(타이타닉), "1조 달러짜리 특수효과에 25센트짜리 이야기"(스파이더맨) 같은 것 말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거장'들이 평론가의 이런 리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비평은 가치 없는 작품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비평이란 '완벽'이란 이룰 수 없는 꿈에 대한 도전이다. 그건 예술의 궁극과도 통한다. 예술가들에게 평론가란 '적(敵)인 척하는 친구'다. 친구에게 아부만을 권하는 우리 거장들. 문제는 오고가는 아부 속에 관객은 유재석과 강호동의 품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글·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조선DB

공정사회가 주는 Yellow card

뿌듯하신가요?
이것은 반칙으로 받은
Yellow card입니다
진정한 성취감은 공정한 경쟁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